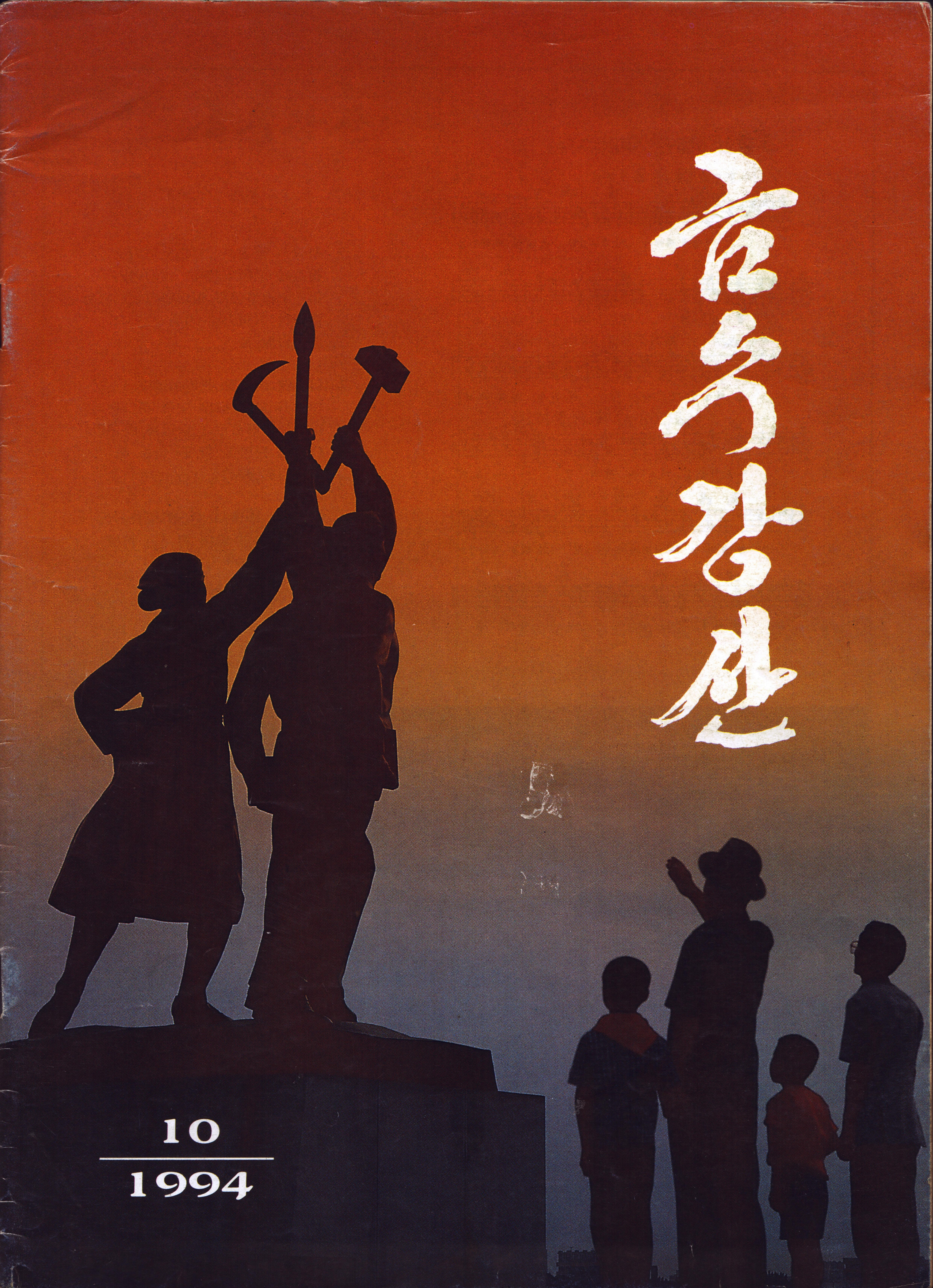
금수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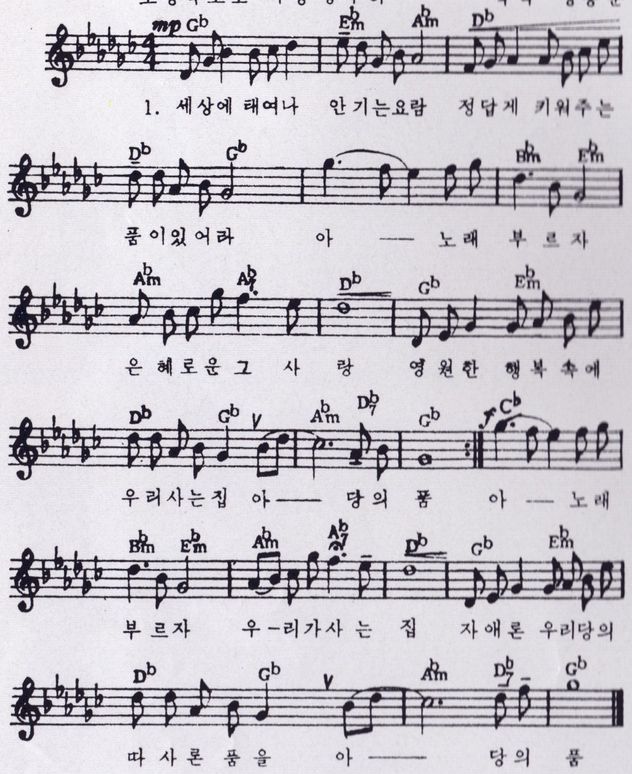
10

1994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작사 리정술
작곡 성동춘

보통속도로 서정 풍부히



2. 자장가 불러준 그 미소인가
첫걸음 떼여주던 그 손길인가
아—노래부르자 어머니의 그 은정
한생을 혁명가로 키워주는 집
아—당의 품

3. 나라엔 아들딸 천만이여도
우리가 사는 집은 오직 하나뿐
아—노래부르자 당중앙을 따르며
대대로 운명을 함께 하는 집
아—당의 품

아—노래부르자 우리가 사는 집
자애론 우리 당의 따사론 품을
아—당의 품



금수강산
월 간
1994년 10호(루계 제62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ㄹ. ㄷ》의 기발 ······························ 2
나의 여생 ······························ 3
우리 당세포비서 ······························ 4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중에서
기이한 인연 (1) ······························ 5
조선말을 배우기까지 ······························ 7
마흔아홉돌기의 년륜 ······························ 8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 11
태평양의 중심에 금자탑을 ······························ 13
인민의 지도자
기 쁨 ······························ 14
내 삶이 꽃펴난곳 ······························ 15
무역일군들과 함께 ······························ 16
과학자일가 ······························ 18
인상기묶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외 1건) ··· 20
고국방문 ······························ 21
동해의 명승—기암유원지 ······························ 22
형제의 정은 영원하리 ······························ 25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8) ······························ 26
석탄생산기지—신창탄광 ······························ 27
빨찌산의 딸 김지현의 외로운 투병 ······ 28

표지 1면 어머니당을 생각할 때마다
사진 남용일, 박강철

겨레의 지향 ······························ 29
령남521호수산협동조합을 찾아서 ······························ 30
동림폭포가 있는 땅 ······························ 31
강철생산기지—8호제강소 ······························ 32
해주시 (1) ······························ 36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흥남공업지구 ······························ 38
이역어머니들의 마음 ······························ 39
존경하는 형님에게 ······························ 40
실학의 선구자 리수광 ······························ 41
력사는 고발한다 ······························ 43
동포들이 추억하는 렬사의 딸을 찾아서 ······ 44
조선특산
단너삼 ······························ 47
민족음식
삼색나물 ······························ 47
동포들이 좋아합니다 ······························ 49
귀향의 길은 열려져야 한다 ······························ 50
친선의 무지개 ······························ 52
영생의 언덕우에 ······························ 53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신라를 구원한 광개토왕 ······························ 54
독자란 ······························ 56

표지 4면 금강산의 가을
사진 리 히 철

주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 45219

《ㅌ. ㄷ》의 기발

내가 살고있는 중국 길림성 화전시는 1926년 10월 17일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을 결성하신 매우 뜻깊은 고장이다.

그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ㅌ. ㄷ》의 강령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방침을 채택하신 다음 모임에 참가하였던 조선의 애국청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화전시 남쪽을 에돌아 흐르고있는 휘발강가에 달려나가시여 노래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에 대하여 회고하시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력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생명체였다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종래의 조직들과는 달리 새형의 공산주의혁명조직으로서의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명시되였다.

《ㅌ. ㄷ》의 결성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시원으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만년초석을 쌓아올린 커다란 사변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명철한 결론을 얻으신 다음 강령에서 당면하게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위대한 사상을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시였다.

이 장엄한 선언에서 밝히신 혁명의 주체적목적과 자주의 원칙은 바로 조선혁명에 처음으로 심어진 주체혁명위업의 씨앗이였다.

《ㅌ. ㄷ》의 투쟁강령은 들끓는 시대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인민의 지향을 절감하신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사색과 탐구로 이룩하신 승리의 기치였다.

이 기치에 새겨진 불패의 고귀한 혁명정신은 간고한 시련의 나날을 거쳐 력사적으로 마련되고 굳게 다져져 승리의 일로를 걸어왔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대전, 조국해방전쟁, 조선식사회주의건설에서 자주의 원칙에 따라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으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도 《ㅌ.ㄷ》의 기발에 새겨진 넋을 그대로 이어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뜻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일심단결하여 《ㅌ. ㄷ》의 강령에 밝혀진 불멸의 혁명정신을 주체혁명위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추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계속 완성해나가고있다.

나는 조선의 피를 물려받고 태여난 동포로서 조선혁명의 위대한 력사적뿌리가 내린 화전땅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더욱더 헌신분투할것을 굳게 결의한다.

중국 길림성 화전시 교사연수학교 박선학



수기

나의 여생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나의 삶에 대해 종종 되새겨보군한다.

돌이켜보면 세월은 류수와 같아 어느덧 나를 여생에로 떠밀어주었다.

피가 동이로 끓던 청춘시절에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과 함께 송전선복구사업과 변전소건설로 전시투쟁에 참가했던 그때로부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그리고 그 이후 오늘까지의 오랜 세월 나의 인생은 송전선과 함께 흘러왔다.

아아한 산정에 올라 또하나의 철탑을 세우고 그 우에서 수려한 산천경개를 굽어보며 구슬땀을 씻는 보람과 기쁨이란 누구나 쉽게 맛볼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대규모의 화력, 수력 발전소들이 각지에 련이어 일떠서는데 따라 조국의 대지와 산발 마다에 철탑들이 수많이 건설된 바로 여기에 우리 송전선건설자들의 힘과 지혜, 정성 그리고 긍지와 자랑이 깃들어있는것이다.

한두해도 아닌 근 42년이라는 세월을 송전선건설자로서 삶을 즐겨온 나에게 있어서 여생이라니 참으로 아니될말이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내가 일하던 송전선건설사업소에 찾아갔었다.

《뭐든지 아무일이나 하게 해주시우. 이거 오금이 저려 어디 편히 앉아 놀수가 있어야지…》

《아바이, 그렇다고 로동법규야 어길수 없지요. 세월이 좋으니 괜한 걱정을 하십니다.》

반죽좋게 웃으며 타이르듯 말하는 로동과 지도원이 오히려 고깝게만 생각되였다.

《에참…》

벌써 몇번째나 이렇게 헛걸음을 했다.

(하긴 내가 인젠 아바이란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니 허거픈 웃음만 나왔다.

어깨가 축 처져 집에 들어설 때면 마누라가 내 심정을 눈치채고 늘 성화였다.

《방금 동사무소에서 당신에게 나온 식량공급표와 생활비를 타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마누라는 이렇게 말하며 국가에서 년로보장자들이 근심걱정없이 편히 쉬라고 직장다닐 때와 거의 비슷한 생활비와 식량을 다 보장해주고있는데 무엇때문에 자꾸만 안절부절 못하고있는가고 푸념하였다.

녀자들이란 참, 내가 언제 살아갈 일이 걱정되여서 그랬던가?!

하지만 되새겨보면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것 같다.

《질긴 목숨》을 탓하며 맥빠진 긴숨을 내쉬는 로인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고령자들도 쉬임없이 육신을 놀려야 벌어먹고 살아갈수 있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로쇠와 함께 밀려드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수입이 얼마되지도 않는 로동현장에서 아득바득 애써 살아가는 서글픈 인생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아마도 나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사회와 인민을 위해 큰 일을 해놓은 공로자도 아닌 년로보장자에 불과한 나에게 국가에서는 한생을 송전선건설로동자로 일해온것만도 커다란 공적이라 평가하며 충분한 량의 년금과 식량을 지불해주고있다.

광복거리의 현대적인 아빠트의 세칸짜리 집에서 마누라와 막내아들을 데리고 사는 나의 생활에 무슨 불편이 있으랴만 동진료소의 의사는 주기적으로 찾아와 어디 아픈데는 없는가고 묻고 진찰을 하며 나이들수록 혈압을 주의하세요, 심장을 주의하세요 하면서 살뜰히도 보살펴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아이들과 로인들을 통하여 그 사회의 인간상과 문명도를 알수 있다고 한다.

정말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려 따뜻한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늘을 모르고 자라고있으며 늙은이들도 년로보장제의 혜택속에서 근심걱정없이 살아가고있다.

어디가나 늙은이들을 대우하고 그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는 아름다운 사회풍조가 차넘치고있다.

우리 가정에만도 자식이 다섯명씩이나 되지만 나는 자식을 위해 근심해본 일이 별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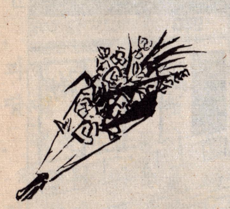
어느새 끌끌하게들 자랐는지 자식들은 장철구대학, 평양경공업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아직 장가들지 않은 막내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간을 나가 행복한 살림을 꾸려가고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적적하시겠다며 자식들은 퇴근길에 들려 생활의 기쁨을 나누고 명절과 일요일, 생일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같이 모여 가족들놀이나 가족연회로 한껏 즐기군한다.

참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흘러가는 나의 여생은 즐기면 즐길수록 《젊음》이 되살고 행복을 새삼스레 느끼게 하여준다.

공원과 유원지들에 이따금 모여앉아 장기판을 벌리는 우리 동년배들이 한담삼아 하는 얘기가 바로 나와 같은 심정의 토로이다.

진정 이 고마운 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여생도 즐거움과 복 속에서만 흘러가는것이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2동 12반 함대운



《우리 당세포비서》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당세포비서 리광식에 대한 이야기)

맑고 푸른 대동강을 옆에 끼고 달리던 취재차는 어느덧 남포시 강서구역 소재지를 지나 약수협동농장으로 향하였다.

한 30여리 달렸을가 드디여 나지막한 산기슭을 따라 들어앉은 조선식 단층기와집들과 2층, 3층의 문화주택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논두렁길에서 이고장에서 태를 묻고 살아온다는 최정규로인을 만났다. 우리가 이곳 리광식세포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자고 찾아왔다고 하자 그는 무척 반가와하며 《우리 당세포비서말입니까? 사람이야 진국이지요. 온 마을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오.

그 사람이 농사일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여 애비속을 무던히도 태우던 우리 넷째아들녀석을 착실한 실농군으로, 농장의 젊은이들을 이끌어나가는 청년대장으로 키워주었다오.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전당당세포비서대회때 우리 세포비서는 토론까지 했다우. …》라고 하면서 한바탕 자랑을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농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리광식은 농장원들속에서 《우리 세포비서》, 《진짜배기 일군》으로 존경받고있다고 말했다.

리광식이 이곳 협동농장 세포비서로 일하기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이였다.

군복차림에 제대배낭을 멘 그에게는 대학에로의 넓은 길이 열려져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마을의 첫 세포위원장이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리라는 포부를 안고 약수리에 제대배낭을 풀었다.

그는 농사일과 마을을 꾸리는 일에 자기의 정력을 쏟아부었다.

작업반장 박순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세포비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대중을 발동하여 끝까지 집행해가고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업에서 시종일관하게 찾아보게 되는 좋은 기풍의 하나이지요.》

그는 계속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봄철 씨붙임전으로 강냉이밭에 관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일이 마지막고비에서 힘있게 벌어지던 몇해전 겨울 어느날이였다.

여느때없이 날씨가 찬데다가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아 일하기가 여간만 힘들지 않았던것이다.

하루일을 마치고 책상을 마주한 리광식의 생각은 깊었다.

(밭관개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논농사뿐아니라 밭농사에서까지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게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의도이다. 당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를 옳게 조직동원하면 천만산악도 떠옮길수 있다고 가르쳐주고있지 않는가.)

이튿날 아침 그는 남들보다 일찍 포전으로 나갔다.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기계를 설치할 위치를 확정한 그는 얼음을 까내고 물속에 뛰여들었다.

찬물속에서 설비를 조절해나가는 당세포비서를 본 농장원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그의 열정에 고무되여 그들은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강우관수체계를 완성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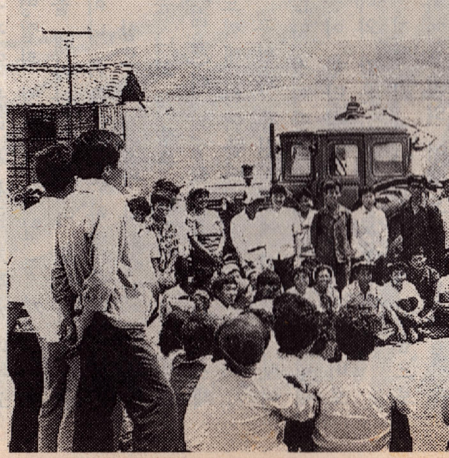
그는 20년간 당세포비서로 일하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을 위한 사업에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도록 농장원모두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지난해 이곳 작업반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심있게 지음으로써 농장적으로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작업반 농장원모두가 뜨락또르나 모내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어 모든 농산작업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있으며 작업반원들은 농장적으로 자주 진행되는 써클경연에서도 매번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여기에는 누가 보건말건 당을 묵묵히 받드는 고임돌이 되고저 애써온 그의 숨은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20대의 젊은 시절에 당세포비서로 사업하기 시작한 그도 이제는 4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농장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당세포비서》로 살며 일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경희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세포비서 리광식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중에서

기이한 인연(1)



본사편집부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한 위만군련대장(중국인)과 친교관계를 맺게 된 사연, 련대장이 친일로부터 반일에로 방향전환을 하여 력사와 중화인민 앞에서 장공속죄한데 대하여 회고하신 부분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

북만의 액목지구는 우리가 길림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고장이였다. 강명근과의 련계밑에 려신청년회라는 혁명조직을 내오고 그 조직에 망라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해오던 교하와 신잔, 삼송도 당시까지는 액목현에 속해있었다. 이 현이 교하현으로 개칭된것은 1930년대말기부터였다고 한다.

우리는 2차 북만원정때 액목땅에서만도 수천리의 장정을 하였다. 청구자, 비파정자, 남천문, 삼도구, 마록구, 신홍툰, 관지, 류채구, 삼과송, 목단강촌, 흑석향, 타요자 등은 다 우리가 그때 개척한 고장들이며 북만원정대의 무공이 새겨진 추억도 깊은 전적지들이다.

그 과정에 흥미있는 사건들도 많이 체험하고 인상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다.

2차 북만원정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 지방에는 혁명바람이 전혀 미치지 못한 미개척지들이 많았다. 우리가 액목원정문제를 토의할 때 주보중이 걱정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김사령이야 벽창호 같은 오의성령감도 일조에 돌려세운 사람이니 어련하겠소만 우린 지난봄에 액목땅에 갔다가 〈홍호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곳곳에서 문전거절을 당했소.》

주보중이 말하는 《홍호자》란 붉은 홍, 되 호, 아들 자 자를 쓰는 중국말로서 비적을 가리키는 뜻이다. 한때 공산주의자들을 경원시하던 오의성이 《홍호자》라는 말로 주보중을 욕했는데 그후 언제부터인지 그 말은 공산주의자들의 군대 일반에게 붙이는 상욕으로 되였다.

과연 주보중의 말대로 우리는 원정부대를 이끌고 액목땅에 들어간 첫 순간부터 《홍호자》의 대접을 받았다. 액목사람들이 원정부대를 보자 《고려홍군》이 왔다고 하면서 마을을 비우고 도망친것은 우리를 《홍호자》못지 않게 경계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 붉은 홍자는 패덕과 잔인성의 대명사처럼 되여있었다.

이런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원정중의 많은 시간을 군중과의 사업에 바치였다. 군중공작을 위해 시간을 바치는것은 랑비가 아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민혁명군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친근한 벗으로, 방조자로 되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련공, 친공의 길로 돌아설 때 우리는 참으로 일확천금에도 비길수 없는 무상의 희열을 느끼였다.

요영구회의후 울면서 유격근거지를 떠나가던 인민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리고 또 혁명에 대한 걱정이 천갈래만갈래로 겹쳐서 심신이 고달프던 때에 액목땅에서 얻은 그런 수확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녕 커다란 기쁨으로 되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중의 기쁨은 동지와 벗을 얻는것이요, 슬픔중의 슬픔은 그것을 잃는것이다.

우리는 액목현경에 들어서기전에 벌써 경박호반의 소산저자에서 채화라는 중국어부를 사귀여 그 호수를 쉽게 건너올수 있었다. 채화도 우리를 만나기전까지는 혁명군을 멀리하던 사람이였다. 19살때부터 30년 가까이 경박호에서 고기잡이를 유일한 생업으로 삼아온 이 순박한 어부는 《고려홍군》을 《비적》이라고 묘사하던 일본사람들의 선전을 그대로 곧이듣고있었다. 그러나 원정대의 위용과 질서정연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 대원들의 소탈하고 겸허한 인품에 끌리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도 태도를 바꾸어 혁명군을 후덥게 대하였다.

격강이 천리란 말처럼 군대의 원정에서 앞길을 막는 강물은 천리길에 맞먹는 장애물이였다. 그러기에 적의 눈을 피해가며 원정대의 경박호도하를 전력을 다하여 보장해준 채화의 수고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1959년에 우리 답사단 동무들이 중국에 갔다가 그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속의 채화는이미 70살고령에 이른 주름많은 로인이였다. 그러나 키가 크고 목이 성큼한 옛모습만은 그대로 남아있어 자못 감개가 무량했다.

청구자전투때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후방물자를 공급해준 백가장 류영생과 흑석향부근에서 아들을 유격대에 입대시킨 유춘발로인을 비롯하여 우리는 액목땅에서 참으로 많은 벗을 얻었고 군중을 쟁취하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한 위만군 련대장과도 깊은 친교를 맺었다.

원정대가 돈화현쪽에 있는 목재소를 치려고 밤새껏 강행군을 하던 때였으니 아마 1936년초에 생긴 일이였

을것이다. 날이 훤히 밝아올무렵에 우리는 행군을 중지하고 대도로옆의 어떤 지주집에 려장을 풀었다. 큰 토성을 둘러치고 포대까지 가지고있는 만만치 않은 집이였다. 위만군이 조직된후이고 또 일본사람들이 사설무력을 허용하지 않는 때여서 그 집에 가병만은 없었다.

지주집은 두채로 되여있는데 한채에는 대원들이 들고 다른 한채에는 지휘부성원들과 후방부일군들이 들었다. 우리는 대문앞에 머슴군차림을 한 대원 3명을 교대로 파견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쉬게 하였다.

오후 4시쯤 되였을 때 보초소로부터 마차 1대가 우리가 머무르고있는 지주집쪽으로 접근해오고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금후 마차가 지주집앞에 멎어섰는데 그안에서 웬 귀부인이 병사 1명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와 잠간 몸을 녹이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지주집으로 곧추 들어왔다.

문밖을 내다보니 눈보라가 날리는 마당에 여우털을 댄 외투를 두벌씩이나 껴입은 미모의 젊은 녀성이 서있었다. 그 호화로운 옷차림에 눈이 뒤집힌 우리 동무들이 벌써 마당에 쓸어나와 행색이 지나치게 현란한 정체불명의 녀인을 에워싸고 검문을 들이대고있었다.

웬 녀자냐고 내가 묻자 나어린 보초는 《사령관동지, 수상한 녀자입니다.》하고 무슨 큼직한 고위급특무라도 잡은것 같은 기세로 우쭐해서 대답하였다. 보초는 그 녀자에게서 날카로운 시선을 떼지 않고있었다.

젊은 중국녀인은 사색이 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만있었다.

나는 그 녀자의 몸수색까지 하려드는 보초병을 엄하게 꾸짖고나서 명령하였다.

《보초동무, 부인이 몸을 녹일수 있도록 방으로 들여보내시오.》

녀인은 방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조심스레 떨고있었다.

나는 중국말로 그 녀자를 안심시키였다.

《부인, 무서워말고 몸을 푹 녹이시오. 어린 보초병이 잘못보고 좀 하대한것 같은데 량해하시오.》

나는 녀인에게 차를 권하고나서 그가 몸을 녹일수 있게 화로불도 가까이에 밀어놓았다.

《부인이 어떻게 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고장 사람들이 〈고려홍군〉이라고 부르는 인민혁명군입니다. 부인은 〈고려홍군〉이란 말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좀 들어보았습니다.》

녀인은 고개를 숙인채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고려홍군〉은 일본사람들이 소문을 내돌리고있는것처럼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비적〉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혁명군은 항일구국을 목적으로 하는 인민의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조중 량국을 침해한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울뿐이지 인민들의 생명재산은 털끝만치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마음을 푹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녀인은 감사의 표식으로 두손을 합장하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서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반신반의의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되고있었다.

나는 부인이 긴장을 풀 때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부인이 위만군병사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죄를 묻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되여 병사의 호위를 받고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인민을 해치지 않고 혁명군을 해치지 않는 이상에야 우리가 무엇때문에 지나가는 길손들을 모욕하고 학대하겠습니까. 우리도 주인장의 량해를 얻어가지고 이 집에 잠간 들려 피곤을 풀던 손님들이니 다른 생각일랑 말고 불이나 뜨뜻하게 쪼이다가 가시오.》

녀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쳐들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 녀자의 눈에 문득 경악에 가까운 빛이 어리였다. 녀인은 두손을 가슴에 포개여얹고 안타깝게 입술을 감빨고있었다.

《왜 그럽니까? 아직도 내 말이 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사실은 대장님의 얼굴이 …전 대장님이 본래부터 인자한분이라는걸…》

녀인은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또다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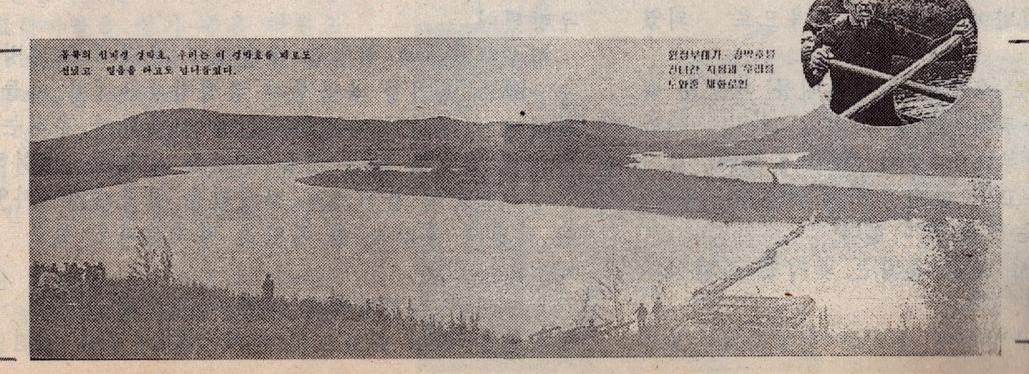
바로 그때 호송병을 심문하던 오백룡이 범잡은 포수상으로 문가에 나타나서 중국 귀부인이 전혀 알아들을수 없는 조선말로 넌지시 보고하였다.

《장군님, 호송병의 말에 의하면 저 녀자는 위만군 12련대장의 안해라고 합니다. 큰 고기가 저절로 그물에 걸려든셈이지요.》

《백룡동무, 너무 우쭐해서 그러지 마오. 큰 고기인가 작은 고기인가 하는건 이제 두고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사실 나는 위만군련대장의 부인이라는 말에 퍼그나 놀랐다.

(다음호에 계속)



경박호와 채화로인

수기

조선말을 배우기까지

나는 2년전부터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인생의 종착역을 눈앞에 둔 60고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삼척동자의 첫걸음마를 떼였다고 생각하니 지나온 나날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다.

나의 한생은 울라지보스또크, 알마아따, 딸듸꾸르간 등 이전 쏘련의 지방도시들에서 흘러갔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리조말기인 1900년에 봉건적학정을 피해 고국땅을 하직하고 로씨야원동지방으로 이주해왔다고 한다. 당시 나의 아버지는 다섯살이였다.

그때로부터 근 한세기동안 우리 가정은 5대에 걸쳐 이국땅에서 살아오고있다.

나는 철들기전에 아버지를 여의였다. 하지만 생전에 고국을 그리도 못잊어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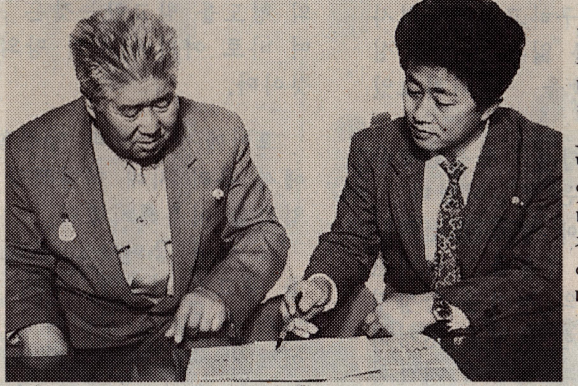
아버지는 림종시 우리 형제들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었다.

《내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이다. 그곳에 우리 선친들의 유골이 묻혀있다. 언제든지 꼭 고국에 가보아라.》

아버지의 유언은 언제나 고국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당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못하였다.

고국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만을 가슴속에 묻어둔채 다사다난한 이국살이에 빠져버리고말았던것이다.



리 보리스(왼쪽)

본의는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 고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되였다. 가끔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생각이 날 때면 저 멀리 고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남긴 말을 회고해볼 따름이였다.

1989년에 나이가 들어 일손을 놓은후부터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세월은 류수같이 흘러 자식들은 이미 어른으로 되였고 귀여운 손자, 손녀들이 태여났다. 자손들이 늘어날수록 기쁨보다 먼저 불안이 갈마들어 잠을 이룰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피줄을 물려주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구실은 했을런지 몰라도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주는 스승의 책임은 하지 못했던것이다. 분명히 조선사람이라 자처하면서도 민족의 중요한 징표인 언어조차 모르고 살아온 모순 역시 나를 괴롭혔다.

더우기 출판물들에 가끔 실리군하는 고국의 소식을 읽을 때면 심뇌는 더욱 커지군하였다.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의 중시, 눈부신 사회주의건설성과, 강토의 분단으로 겨레가 겪고있는 재난과 불행…

나는 오랜 세월 이모든것을 외면한채 이방인처럼 살아왔다.

비록 너무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조선사람답게 살고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나는 우선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조선말로 된 책들과 출판물들을 애써 구했고 조선말을 조금이라도 아는 동포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딸듸꾸르간시에 있는 동포들은 대개가 이곳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아니면 고국을 떠난지 너무도 오래된 사람들이여서 말을 배우기가 힘들었다.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와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고국에서는 우리들의 심정을 헤아려 조선말과 글을 배워줄 선생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너무 기뻐 환성을 올렸다. 우리 딸듸꾸르간시에 온 선생은 최철수라고 나이 서른이 좀 넘은 젊은 사람이였는데 무척 상냥하고 착실하게 말과 글을 배워주었다. 저녁이면 남녀로소 가림없이 수많은 동포들이 학교로 모여들군하였다.

두달가량 학교에 다니고나니 웬만한 말은 주고받을수 있게 되였다. 그때의 기쁨을 이루다 표현할수 없다.

나는 힘든 단어와 문장들은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며 글을 익혔고 고국의 잡지와 화첩들도 빠짐없이 보면서 말과 글을 숙련시켰다.

지난해에 고국에서 동포들에게 민족무용을 배워주러 안무가가 석달가량 와있었는데 나는 그를 우리 집에 류숙시키고 저녁마다 그와 말을 주고받으며 열심히 배웠다.

이렇게 되여 나는 미숙하게나마 조선말을 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 4월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는 행운이 나에게 차례졌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선말을 잘한다고 고무해주는데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고국을 위해 한 일도 없고 이제 겨우 말이나 배운데 불과한 나를 그처럼 장하게 여겨주는 고국인민들의 그 마음과 인정이 눈물겹도록 고마왔고 사는 보람을 새롭게 느끼였다.

지금은 일요일마다 나에게로 놀러오는 손자, 손녀들에게 조선말을 배워주고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을 제일 큰 락으로 삼고있다.

현재 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사업과 민족예술단사업에도 관여하고있다.

인생말년에나마 민족앞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로 하여 밤이면 기쁜 마음으로 잠들군한다.

까자흐스딴 딸듸꾸르간시

리 보리스



마흔아홉돌기의 위대한 년륜

올해 10월 10일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49돐이 되는 날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의 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승승장구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이날을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9년전 조선로동당이 창건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전위조직을 내올 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으며 그 풍부한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1945년 10월 10일 우리 당 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하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당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커다란 력사적사변이였다. 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을 확신성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창건후 우리 당이 걸어온 근 반세기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당이 굳게 뭉쳐 백전백승의 위훈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행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강유력한 당으로,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당의 투쟁력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변으로 되는것은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것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령도의 계승문제는 곧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이다.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은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한다. 이것은 당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된다.

최근년간 여러 나라들에서 집권당들이 허물어지고 사회주의위업이 좌절되게 된것은 바로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였던것과 크게 관련되여있다.

우리 당에서는 당과 혁명대오, 혁명무력의 진두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당의 위업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독창적인 사상리론가, 정치가,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가장 큰 행운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건설위업을 이끄시는 오랜 행정에서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다진것,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비상히 강화한것은 그이께서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전당에 확고히 수립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구호의 정신이 전당에 지배하고있는 오늘처럼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가 강화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으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갈 철석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당을 불패의 령도예술을 지닌 혁명의 참모부로 튼튼히 꾸리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의 빛나는 구감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반적인 당활동에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비상히 높이시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걸어온 년대기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단결의 중심이시며 령도의 중심이시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이어 위대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유일한 령도자로,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을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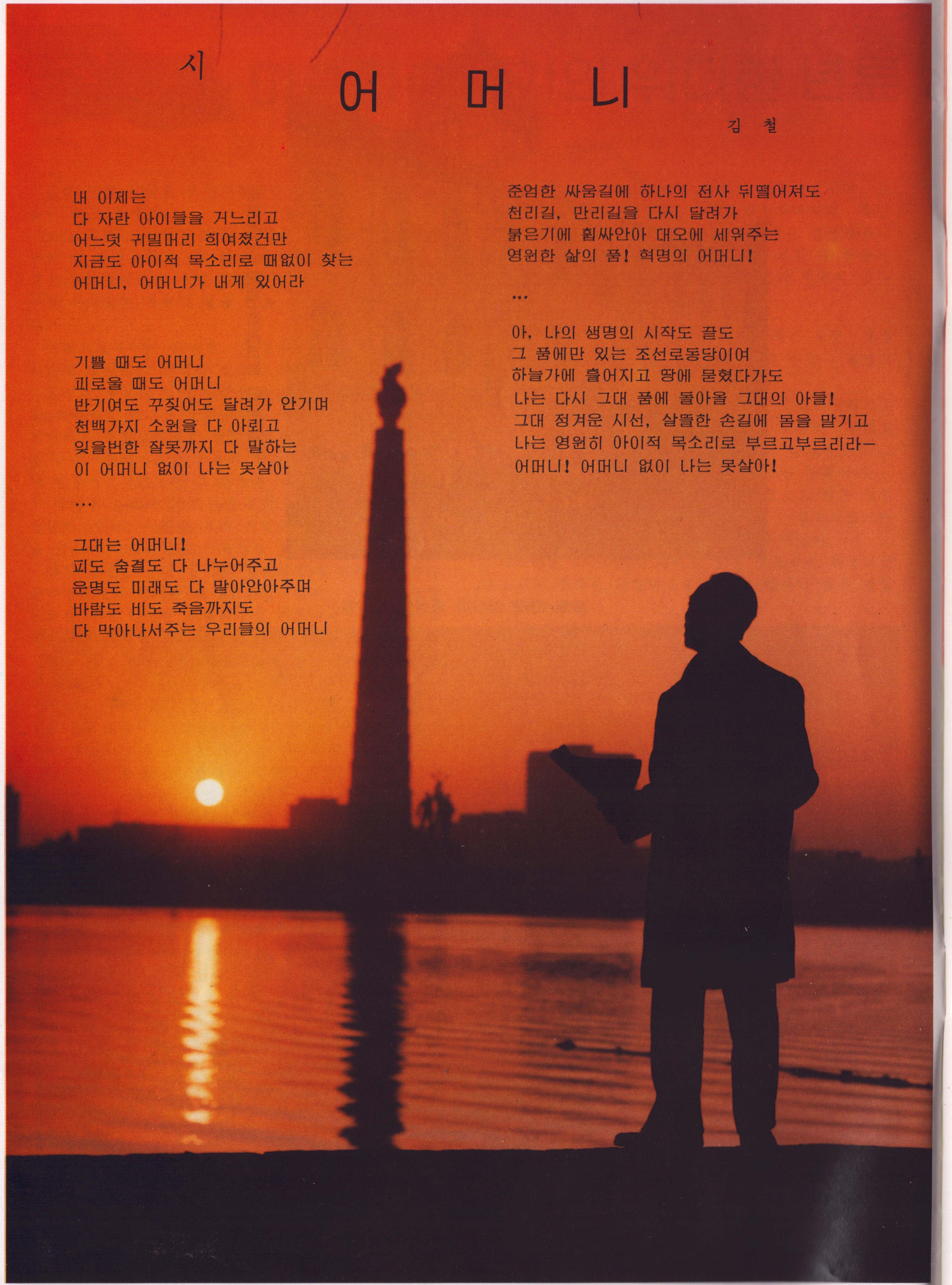
본사기자 권오식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는 근로자들

당을 따라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시

어 머 니

김 철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일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남새영양가루, 단묵, 물고기가루, 애기암가루 등 다종다양한 식료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콩우유에는 식물성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들이 많이 포함되여있으며 립자가 보드랍고 맛도 대단히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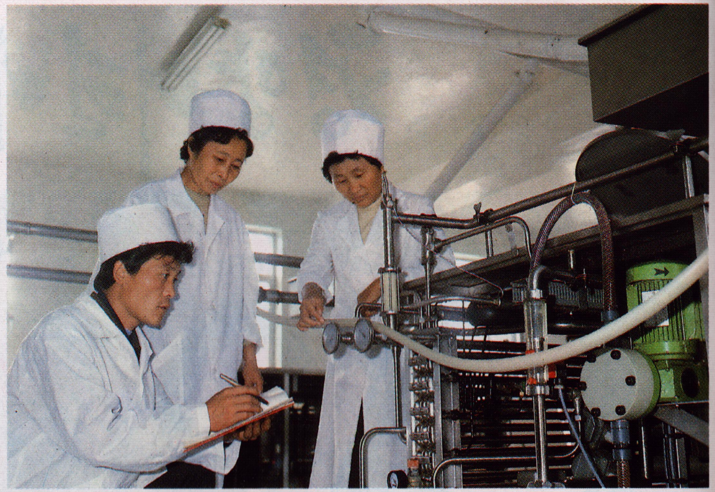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뼈도 굵어지고 키도 빨리 자라며 몸도 튼튼해진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콩우유는 송달체계가 철저히 세워져있어 평양시내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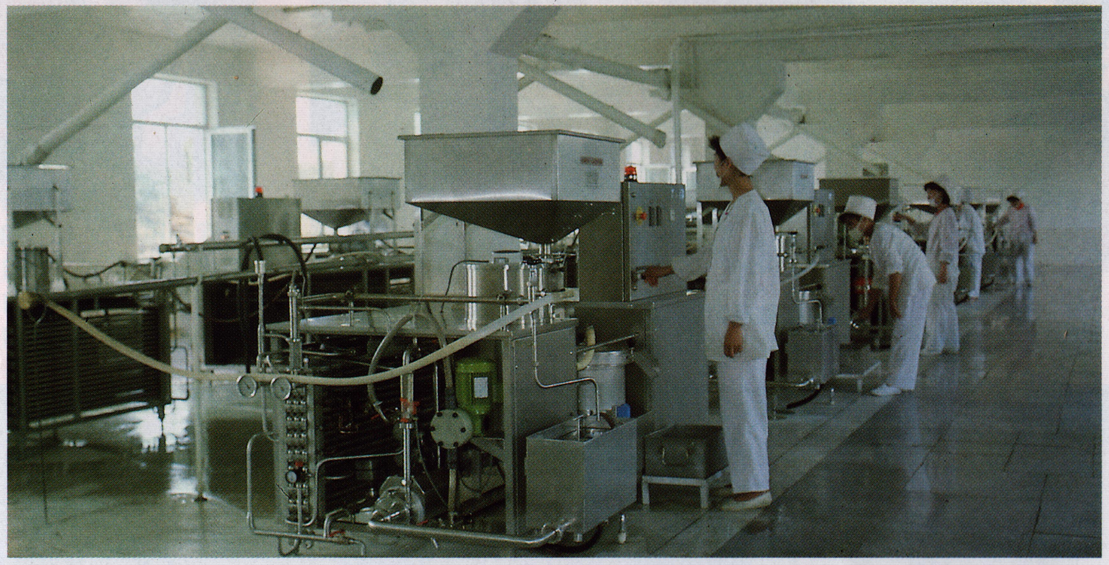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전경



콩우유를 생산하고있다.



질좋은 콩우유생산을 위해



생산된 콩우유는 탁아소와 유치원, 인민학교, 중학교들에 공급된다.



태평양의 중심에 금자탑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여러달이 흘렀다. 하건만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신문, 방송들,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은 계속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그이의 위대성을 칭송하고있다.

우간다, 탄자니아의 신문, 방송은 이렇게 전하였다. 력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령도자들을 기록하고있지만 **김일성**동지와 같이 가장 로련하고 권위있는 원로급의 세계적령도자는 알지 못하고있다. 그이께서는 벌써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반일투쟁에 나서시고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군대를 창건하시고 풍찬로숙하시면서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을 이끄시여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였고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그이는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신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같은 인민의 수령, 세계적위인을 모시고있었던것은 전인류의 행운이였다.

네팔, 에티오피아 등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어버이이시며 전세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가장 명망높으신 탁월한 수령이시였다, 그이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유일하게 성공하신 특출한 령도자이시며 끝없이 겸손하신 위대한 수령이시였다고 말하였다.

영국, 자이르, 우크라이나, 요르단,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소개하면서 그이의 좌우명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는 조선과 아세아, 세계 력사가 낳은 위인,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존경을 받은 령도자이시다, 그이는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여 조선인민에게 참으로 좋은 세상을 마련해주시였다, 그이의 은덕으로 조선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같이 행복을 누리며 화목하게 사는 나라로 되였다, 하기에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그이의 서거를 그토록 슬퍼하고있는것이라고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은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 전설적영웅, 조국통일의 등대라고 하면서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존함은 인류력사와 더불어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이의 위업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승완성할것이라고 한결같이 전하고있다.

재미교포 손원태선생, 제5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고국에 온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량동민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동포대표단들이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절통함과 애석함을 토로하였다.

손원태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어린 나이에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면서 조국의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 통절히 느끼였다. 그러던 내가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후부터는 나에게도 조국이 있고 위대한 령도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하여 고독함을 몰랐고 영광과 긍지로 하여 흘러가는 세월이 무정하기만 했다.

나는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가 넘치는 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을 생각하면 잠들수가 없다.

세계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를 잃었으며 백의동포는 민족의 태양을 잃었다. 그리고 손정도 집안의 가장 친근한분을 잃었으며 나는 한분밖에 안계시는 형님을 잃었다. 생의 말년에 신념과 의지, 마음의 기둥을 잃었으니 나의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수천수만의 해외동포들이 지니고있는 진실한 감정이다.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통일성업에 매진하겠다.

지구가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영생할것이다.

손원태선생은 **김일성**동지께서 자기의 생일 80돐에 즈음하여 생전에 마련해놓으신 선물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꽃바구니와 선물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김일성**동지의 명복을 기원하였다.

서울에서의 한 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강원대학교 김 아무개 교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탐독하는것을 막겠다는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의 빛발을 막아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회고록을 읽어보면 그이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더 잘 알게 된다.

주석은 세계의 평화와 자주위업실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영걸이시고 인류의 태양이시였다. 그러기에 전세계적범위에서 전례없는 규모의 추모행사들이 진행된것이다.

주석께서는 생전에도 세계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180여개의 최고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으셨고 7만여점의 진귀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진귀한 선물을 드려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본다.

내 생각엔 주석은 자주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칭송받으셨기때문에 그분께 자주시대의 태양을 상징한 그런 특이하고 진귀한 훈장과 선물을 마련해서 드려야 한다고 본다. 어느 외국인은 태평양의 중심에 **김일성**주석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금자탑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나는 지구의 가장 높은곳에 **김일성**주석의 위훈을 전하는 금자탑을 세우고 지구의 중심에는 주석의 동상과 그분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대혁명박물관을 건립해야 하리라고 본다.

김일성주석은 우리 7천만 겨레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다.

본사기자 로명준



인민의 지도자

기 쁨

1982년 4월 어느날이였다.

이날저녁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곧 준공하게 될 어느 한 건물을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이제 그이께서 참석하셔야 할 행사시간까지는 30분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몇몇 일군들에게 자신의 차에 오르라고 하시며 **《…지금 가서 문수거리를 돌아봅시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이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일군이 이제 행사시간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문수거리는 다음 기회에 돌아보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문수거리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으니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인민들의 기쁨이자 우리의 기쁨인데… 시간이 없으면 한바퀴 빙 돌아보기라도 합시다.》

그러시고는 굳이 차에 오르시였다.

그이를 모신 승용차는 4.15명절을 맞이하여 단장된 수도의 밤거리를 달리였다.

이윽고 승용차는 문수거리에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차창의 유리를 내리우시더니 형광등이 환히 켜있는 살림집들을 눈여겨보시며 묻기도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였다.

문수거리 기본통로에 들어서시여서는 차를 달리게 하시다가는 멈추어세우시고 세우시였다가는 다시 달리게 하시면서 손수 살림집 층수도 세여보시고 집들에 해빛이 잘 들겠는가도 헤아려보시였다.

한편 상업류통망이며 학교망 등도 다 헤아려보시며 이 통로, 저 통로로 차를 몰게 하시던 그이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문수거리에 건설한 건물들이 다 크고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도로도 륜환선으로 잘 뽑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평양시에 새 거리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문수거리를 일떠세우니 평양시가 더 환해졌습니다.》

그이께서는 다시 문수거리 2계단공사를 다그칠데 대한 방향도 제시해주시였다.

그런데 중심거리를 달리던 승용차가 창가에 불빛이 환히 흐르는 한 살림집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 불밝은 창문들에 기쁨의 미소를 보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자 일군이 당황하여 말씀드렸다.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웃으시였다.

《아무리 바빠도 여길 그냥 지나갈수는 없구만, 잠간만 세우시오.》

아직 그이의 의도를 모르는 일군들은 의아해서 거리를 내다보았다.

별다른것이 없었다.

승용차가 멈춰서자 그이께서는 거리를 내다보시다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눈을 감으시였다.

차안엔 때아닌 정적이 깃들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눈을 감으신채 기쁨어린 어조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저 웃음소리를 듣습니까? 그전엔 개구리 울음소리만 들리던 이 문수벌에 오늘은 현대적인 도시가 일떠서 저렇게 창가마다에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그제서야 일군들도 들었다. 살림집들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를…

그것은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였다.

이밤, 바쁘신 길을 멈추시고 그 웃음소리에서 일만시름을 다 놓으신듯 흐뭇이 미소지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들으시는줄도 모르고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더 크게 울려나왔다.

그것은 그대로 그이의 기쁨이였다.

내 삶이 꽃펴난곳

무성한 잎새를 펼친 한그루의 나무에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한떨기의 꽃에도 그를 자래운 자양이 있듯이 오늘 나의 행복도 창창한 미래도 따사로이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품이 없이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푸른 하늘 창공에 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볼 때마다 나는 길가의 조약돌처럼 던져졌던 나의 운명을 건져주고 보살펴준 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군한다.

그것은 정을 붙이기 힘든 이국땅에서 민족적수모와 천대를 받아오다가 오늘은 한 공장의 당사업을 책임진 어엿한 일군으로 성장한 나의 인생이 은혜로운 조국의 품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내가 귀국하는 아버지를 따라 누이들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것은 1960년 4월이였다.

그때 어머니와 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 귀국하지 못했다.

귀국할 당시 내 나이는 9살이였고 큰 누이는 13살, 작은 누이는 11살이였다.

사실 나는 귀국하기전까지만 해도 조국이란 무엇인지 다는 몰랐다. 그저 당시 일본땅에서 병으로 시달리던 아버지가 죽더라도 조국에 가야 한다고 자주 어머니에게 외우던 말을 듣고 조국이란 우리가 꼭 가야 할곳이라고만 생각되였다.

어머니조국은 우리를 뜨겁게 맞아주었다. 그날 한 일군의 안내를 받아 새 집에 들어선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담한 방들에는 갖가지 가구류들이 갖추어져있었고 부엌의 독들마다 흰쌀이 가득가득 차있었다. 양념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부식물들도 다 마련되여있었다. 게다가 불까지 지펴놓아 온돌방은 따끈따끈하고 아늑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기쁨이 한껏 어리였다.

그날밤 우리 온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지난날 우리들은 일본 도꾜의 어느 한 뒤골목에 있는 판자집에서 살았다. 온 가족이 고무공장에 다니는 아버지의 몇푼 안되는 품삯에 명줄을 걸고 눈물겹게 살아왔다.

이제는 그 모든것이 옛말로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일본 고무공장에서 일할 때 생긴 아버지의 병은 현대의학으로써는 고칠수 없는 극한점에 이르러 별의별 치료대책을 다 취했으나 고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귀국한지 얼마 안되여 끝내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우리 형제가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고 보호자로 믿어오던 아버지를 잃었을 때 누이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였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일본에 있는 어머니와 형님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와 같이 조국에 귀국한 사람들도 우리 형제들의 앞날에 대하여 은근히 걱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였다.

조국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우리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과 공부할 걱정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나라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인민학교시절부터 특별히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철따라 새 교복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안겨주었으며 한점의 그늘도 없이 조국의 품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주었다.

중학교를 졸업한후에는 우리의 희망대로 상급학교에도 보내주었고 내가 동무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는것을 몹시 부러워하자 나의 소원대로 조국보위초소에도 내세워주었다. 당에서는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조국과 혁명 앞에 별로 한일도 없는 나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조국이 나에게 베풀어준 믿음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갔다.

군사복무를 마친 나는 정준택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은행부문에서 일하였으며 그후에는 부지배인으로 사업하였다. 그리고 오늘은 한개 공장의 당사업을 맡아보는 유급당일군의 중책까지 지니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서였더라면 우리 형제는 아마 어느 뒤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굶어죽었거나 얼어죽은지 오랬을것이다.

하기에 그후 조국을 방문하여 20년만에 우리 형제를 만나게 된 어머니는 나를 부둥켜안고 《네가 정말 내 아들 윤길이란말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하면서 목메여 흐느껴 울었다.

참으로 조국의 넓은 품은 우리 형제들뿐만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안겨살아갈 진정한 어머니품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요람이다.

조국에서 태여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다.

맏아들 충혁과 딸 춘심은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으며 둘째아들 충명은 평양제1고등중학교에서 미래의 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얼마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가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시고 친필회답서한까지 보내주시였다.

나는 우리 귀국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련다.

나는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잘하여 질좋은 가구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그리하여 어머니당의 당일군이 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겠다는것을 마음속깊이 결의다진다.

평양 선교가구공장 초급당비서
리 윤 길

좌담회

무역일군들과 함께

참가자 정희관 : 릉라도총회사 부총사장
남경호 : 릉라도총회사 지도원
김종우 : 애국최종락피복공장 지배인
사 회 : 본사기자

사회 : 안녕들 하십니까? 최근에 릉라도총회사가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정희관 : 먼저 우리 릉라도총회사가 조직된 경위부터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1973년 여름에 조직되였습니다.

회사가 대외무역을 갓 시작할 때에는 얼마 안되는 상품을 가지고 주변나라들과만 거래하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자체의 튼튼한 제품생산기지들을 도처에 꾸려놓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 지역들을 대상으로 무역거래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총회사는 여러개의 회사들과 지사들을 가지고있으며 《부흥》호, 《릉라도》호를 비롯한 여러척의 대형무역선들을 가진 무역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남경호 : 지금 우리 총회사는 널리 알려진 신덕물가공공장을 가지고있으며 애국최종락피복공장, 릉라도수출피복공장을 비롯하여 피복생산기지들과 수산물류, 금속류, 비금속광물류 등 100여종의 다종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수출할수 있는 기지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로씨야, 일본, 몽골을 비롯하여 동남아세아, 구라파, 아프리카 등 광활한 시장들에 진출하고있으며 우리 회사와 대상하는 상사수는 백수십개나 됩니다.

수출액만 보아도 창립초기인 1974년에 비하여 지난해에는 100여배나 장성하였습니다.

정희관 : 우리 총회사는 대외무역을 통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많은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을 보장해주어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있으며 농업생산과 축산업발전에도 한몫 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있는 남방지대 파일들을 정상적으로 들여다가 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습니다.

기자 : 릉라도총회사에서 수출하고있는 제품들에 대한 대외적수요가 매우 높다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남경호 : 신덕물만 놓고 보아도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세아나라들과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에 수출하고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조선의 신덕물이 깨끗하고 맛이 좋을뿐만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성분들을 충분히 가지고있어 건강장수용 물로 쓰고있다고 합니다.

김종우 : 우리 총회사산하 피복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남자고급기성복



과 여러가지 녀자옷 그리고 뜨개옷제품들은 매해 수십만착씩 수출되는데 그 모양과 색갈이 다종다양하고 질이 좋아 독일, 오지리, 중국 등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애국최종락피복공장에서 생산되는 남자고급기성복을 비롯한 여러가지 옷들은 지금 일본에서 우수상품으로 평가되고있습니다.

오지리의 한 청년은 결혼식날에 우리 총회사에서 만든 고급기성복을 입었는데 어찌나 몸에 꼭 맞고 인품을 돋구어주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기자 : 릉라도총회사 제품들이 대외시장에서 적지 않게 호평을 받고있는데는 총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일군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희관 :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사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거래에서 제일 중시하고있는것이 계약된 제품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보내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무역에서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역일군들은 친선과 협조의 리념밑에 무역대방일군들을 아량있게 대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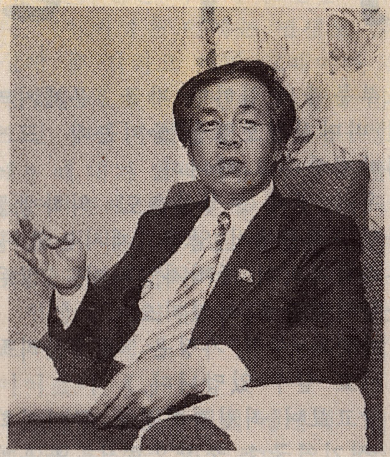
김종우 : 옳습니다. 무역일군들이 서로 도와주는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지난해 5월이였습니다. 우리 총회사에서 많은 량의 피복제품들을 배로 해당나라에 실어보내게 되여있었습니다. 우리가 남포항에서 계약된 물자들을 배에 거의 실었을 때 대방에서는 갑자기 뜻밖의 요구를 제기하여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우리의 피복제품들에 대한 긴급수요가 제기되였기때문에 급히 비행기편으로 실어보내달라는것이였습니다.

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다소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방과 계약규률을 론하기에 앞서 그들의 요구부터 착실히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후부터 그 나라에서는 우리와의 무역거래에서 더욱 신의를 지키고있습니다.

남경호 : 우리 총회사와 무역관계를 맺고있는 여러 나라 회사일군들



은 한결같이 조선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나라이고 경제적잠재력이 있기때문에 마음놓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해주고있습니다.

기자 :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릉라도총회사의 무역활동전망에 대하여서도 좀 이야기해주었으면 합니다.

정희관 : 이미 언급하였지만 신용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계약된 제품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만들어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사의 제품들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에서 이미 꾸려놓은 생산기지들을 물질기술적으로 더욱 보강하는 한편 그 규모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하여 무역의 가지수를 훨씬 더 늘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릉라도총회사가 자기앞에 부과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앞장서려고 합니다.

기자 :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외무역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바랍니다.

상식

감기예방에 좋은 마늘물양치질

옛날부터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였는데 감기가 심해지면 기관지염, 폐염, 뇌막염, 심장병 등이 올수 있다.

현대의학은 감기비루스의 형이 수십가지나 되기때문에 그 예방에 애를 먹고있다. 그 수많은 형의 감기비루스를 다 타격하는 예방접종약을 만든다는것은 대단히 힘들기때문이다.

그런데 마늘은 어떠한 형의 균에 대해서도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마늘을 감기예방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마늘물양치질은 매우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마늘물양치질은 어떤 형의 감기에도 다 효력을 나타낸다.

마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몸무게 10키로그람에 1그람의 비률로 마늘을 준비한다. 그리고 사탕 6그람, 끓인 물을 식힌것 60그람정도, 아구리를 꼭 막을수 있는 큰병 하나, 50~60미리리터정도의 물을 넣을수 있는 작은 병을 여러개 준비한다.

먼저 큰병에 끓인 물을 넣는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다음 인차 끓인 물을 넣은 큰병에 넣고 단단히 마개를 막아 6~7시간 놓아둔다. 시간이 되면 그것을 약천으로 려과한다. 려과한 마늘물에 사탕을 넣고 다시 마개를 잘 막은 다음 2시간동안 놓아둔다.

이것이 양치질을 위한 마늘물이다. 이것을 한번 쓸 분량만큼씩 나누어 작은병에 넣고 꼭 막는다.

한번 사용량은 20~30미리리터이다. 아이들은 약 절반정도로 한다.

양치질방식은 마늘물을 입에 넣고 목구멍안에까지 닿도록 잘 양치질을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실증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즉 위부위와 허리가 나온 사람은 마늘물을 양치질하는데 그치고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아래배가 나오고 몸이 랭한 형의 사람들은 이 마늘물을 먹음으로써 위장 등이 자극을 받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밥맛도 나고 몸전체에서 활력이 생기므로 감기비루스에 대한 방어력도 높아진다. 마늘로써 감기비루스를 죽일뿐아니라 2중의 효과가 얻어진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해야 할것은 이 마늘물에 꿀을 넣는것은 피해야 한다. 꿀은 대단히 소화흡수가 좋은 과당이기때문에 마늘의 성분이 장속에서 충분한 작용을 하기전에 흡수되므로 좋지 않다.

이 마늘물은 성분이 변하기 쉬우므로 하루분씩 매일 만들어쓰는것이 좋다.

과학자일가

지난6월 우리는 우리 나라 보건부 물질대사연구중심을 책임지고 김만유병원에서 림상활동을 하고있는 최응석박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였다.

선생의 집은 광복거리 축전동의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한가정의 박사, 준박사들

우리가 집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인듯한 녀인이 나와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방안에 들어서보니 마침 일가친척이 다 모인듯 명절처럼 흥성거리고있었다.

《오늘 이 집에 무슨 경사가 생긴 모양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묻자 최응석선생의 맏아들인 최원경이 기쁜 어조로 말했다.

《네, 얼마전 우리 둘째삼촌이 제22차 제네바국제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족축하모임을 열었지요. 이런 축하모임은 우리 가정에서 종종 있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삼촌이 최우석선생이고 첫째삼촌은 최창석선생이란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우리와 인사를 나눈 최창석선생과 최우석선생은 오래동안 보건부문의 책임적인 직위에서와 중요과학부문의 공학박사로 일해온 이름있는분들로서 이미 우리의 취재길에서 인상깊은 여운을 남겨주었던 과학자들이였다.

(참 훌룽한분들을 모신 끌끌한 가정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에 젖어있는데 최원경은 자못 긍지감에 넘쳐 말했다.

《우석삼촌이 이번 전람회에 제출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심사원들도 경탄을 표시하였답니다. 그것은 세계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서 선박건조부문에 도입하면 지금 문제거리인 바다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셋째 문석삼촌도 의학생물학연구부문에서 일하고계시는데 공훈과학자이며 준박사입니다. 많은 과학적발명을 하였지요.

과학과 우리 가정은 불가분리적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알고보니 최원경자신도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소장으로서 공훈과학자이며 부교수, 준박사인데 나라에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과학자들중의 한사람이였다.



둘째아들 최원철은 합영공업총국 종합국장으로 일하고있는데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경제학박사이다.

셋째아들은 국가과학원 의학과학연구원 설비처장으로서 준박사인데 수많은 기술발명들을 하였다고 한다.

최응석선생의 조카들인 최원명, 최원무, 김경일은 의학부문의 준박사들이며 김철우, 최원초, 최경석은 물리학,설계 부문의 준박사들이였다. 그리고 3명의 매부들도 준박사들이고 처조카들인 김려직, 최찬석은 의학박사이며 김길구, 김길웅은 준박사, 맏손자 최성근은 후보준박사였다.

헤아려볼수록 과학과 기술로써 조국을 받들어가는 이 가정의 박사, 준박사들의 참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가정의 자랑을 새삼스레 간직하는듯 최원경은 《우리 일가에는 박사가 5명, 준박사는 16명인데 그중에 공훈의사, 공훈과학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사업에 착수하여 성공을 눈앞에 둔 사람들도 적지 않답니다.》라고 말했다.

진정 최응석선생의 일가는 누구나 과학과 기술을 전공하여 대가정을 이룬 쉽지 않은 과학자일가였다.

최응석박사

최응석선생의 온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빙 둘러앉더니 뜻깊은 가족축하연을 풀었다.

저마다 현재 연구중에 있는 과학기술적문제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회포를 나누었다.

잠시 이야기가 흐른 뒤에 가정의 제일 좌상이며 스승이기도 한 최응석선생이 웅심깊은 목소리로 이야기의 서두를 떼였다.

《내가 늘 하는 얘기다마는 80고령에 이른 오늘 이런 자리를 하고보니 또 흘러온 내 인생이 회고되는구나…》

선생일가는 평양에서 10대를 물려오며 살았다.

어린시절에 《수재》로 이름이 높았던 그는 17살에 배움의 꿈을 안고 일본에 건너갔다.

비상한 향학열을 가진것으로 하여 도꾜제1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어 도꾜제국대학 의학부에까지 들어가 공부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나날은 돈이 없고 나라없는 한 인간의 피타는 고학으로 이어진 울분의 나날이였다.

이악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뒤이어 의학박사의 학위도 얻었지만 일본의 어느 연구소도 대학도 병원도 조선사람이라고 하여 취직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끝없는 탐구심에 불타던 그는 조선에 건너와 자기의 실력을 검토해보는겸 자기나라, 자기 인민에 대한 의학적연구를 하였다.

그 나날에 얻어진것이 일본의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하에서의 주택, 식량, 인구상태, 사람들의 체질, 어머니들의 상태, 질병상태 등을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조선의 농촌위생》이라는 도서였다.

그러나 그 책이 발간되자 그는 체포되였다. 오래동안 그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던 일제는 이른바 천황제를 반대하고 치안유지법을 반대할 목적으로 그 책을 썼다는 《죄》와 항일유격대입대기도, 재일조선지식인들을 규합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등의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기를 강요하였다.

그는 억울했다. 제 나라, 제 땅에 대한 연구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과학자의 운명, 진리를 따르는 사상도 마음껏 체득할수 없는 사회에 대한 격분으로 몸부림쳤다.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속에 방황하던 그는 서울에서 8.15해방을 맞이했다.

이제는 해방된 민족의 인테리로서 마음껏 과학연구사업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 역시 여지없이 짓밟혔다.

미제의 반동적인 《국립대학령》을 반대하여나섰던 그는 체포령을 받고 또다시 숨어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그가 뜻밖에도 **김일성**장군의 부르심을 받고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오게 되였다.

그는 곧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 부학부장으로 배치받아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북조선중앙병원 원장, 북조선보건련맹 위원장의 직책도 겸하여 보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과학자로서의 지혜와 정열을 마음껏 조국에 바칠수 있었고 인민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참된 삶을 누려갈수 있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 살아왔고 수령의 전사로서의 영예와 의리를 지켜왔다.

그 나날에 그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로 성장하여 조국의 재보로 되는 수많은 의학저서들과 의학론문을 제출하였으며 3명의 박사, 33명의 준박사를 키워내는 등 의의깊은 삶을 수놓았다.

가 풍

선생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자 그의 딸인 최원애가 말을 이었다. 《아버님은 인제는 년세도 많으신데 좀 쉬라고 하면 그때마다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해볼 때 내가 벌써 편안히 집에 들어앉는다는게 도리에 맞는 일이냐?〉라고 하시며 하루도 변함없이 병원에 출근하신답니다.》

선생의 이러한 생활신조는 그대로 자식들에게, 일가혈육들에게 이어졌다.

선생은 자식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군한다. 《한생 내과분야의 전문가로 살아온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나에게 진짜 생명을 준 은인에 대하여 생각한다.》

정녕 도꾜 후까가와 세쯔르멘트 진료소에서 몇푼의 돈을 벌어 학비에 보태겠다고 수모당하며 철야근무를 설 때도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심장은 뛰고있었다. 나쁜놈들의 작간으로 종파의 루명에서 헤여날길 없던 그 암담한 날에도 그의 몸안에서 대사운동은 끊임없이 진행되였다. 하지만 과연 누가 그때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수 있었겠는가?

생명은 그것 없이는 살수 없고 살아도 빛이 없는 바로 그것, 백발의 로학자에게도 청춘의 정열과 희망을 주고 앞길이 막혀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희열을 안겨주는 가장 은혜롭고 숭고한 조국의 사랑이였다.

올해 2월 2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응석선생의 생일 80돐이 되는 날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생일상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그 사랑에 목메여 온 식구들이 모여 뜨거운 격정에 넘쳐있던 때가 엊그제 일이다. 나라의 배려속에 어엿한 과학자, 기술자로 성장한 자식들과 일가친척들이 오늘은 또 한자리에 모여 그 사랑, 그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것이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것은 나와 우리 가정이 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불변의 진리라고 할수 있지요.》 최응석선생의 말이였다.

일동이 과학계에서 일하고있는이 가정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과학연구사업을 최응석선생에게 의뢰하여 토론하며 검토받는것을 어길수 없는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그때마다 선생은 과학자라면 명예나 학위학직 자체에 목적을 둘것이 아니라 조국앞에 지닌 량심과 의무를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일깨워주군한다.

이러한 생활체계는 어느덧 이 가정의 가풍으로 굳어졌다. 이 가풍속에서 수많은 박사, 준박사들이 배출되고 참신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라나고있는것이였다.

취재를 마치고 그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학자일가의 참모습이 깊이깊이 아로새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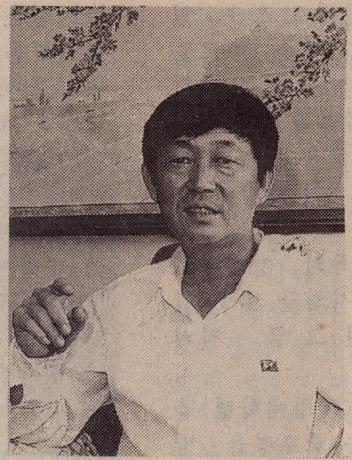
본사기자 채금옥



최응석의 가족

〔인상기〕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저는 영광스럽게도 조국해방 49돐을 계기로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에 재중조선인대표단의 한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여 나라의 분단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절감했습니다.

분단의 장벽, 원한의 장벽이 가로놓인채 장장 반세기 세월을 헤여져 살아온 우리 민족이 당하는 그 아픔, 그 고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80평생을 오로지 조국통일성업에 바쳐오시였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신채 그이께서 우리곁을 떠나가시였으니 고국땅을 밟은 우리 재중동포들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심정이 이러할진대 고국인민들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고국인민들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고국인민들의 그 억센 슬기와 강의한 의지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으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것이 그리운 고국이며 최대의 소원은 조국통일입니다.

북과 남에 있는 정다운 일가친척들과 화목하고 단란한 생활을 누리며 우리 민족이 자유로이 오고갈수 있는 통일의 그날은 눈앞에 다가오고있습니다.

우리모두 북과 남, 해외의 뜨거운 통일열기를 한데 합친다면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 동포도 하나된 승리와 영광의 날은 앞당겨질것입니다.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들은 범민련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단동지부 부책임자 정원곤

〔인상기〕

고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마련해준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두차례 고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큰 고무를 받군하였습니다.

고국에 와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사명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과 재간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국에 이바지할줄 아는 의리깊고 성실한 사람들속에 있게 되니 저의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되는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아버지 **김일성**동지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나 고국은 자기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조금도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현실은 일부 선전물들이 떠드는것과는 정반대로 고국인민이 자기의 힘을 자각하고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확신하는 완전히 자주적인 인민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습니다.

고국인민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매우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있습니다.

고국인민들은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그리고 나라의 통일을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저는 고국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보면서 고국인민의 미래는 위대하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마음씨 곱고 재능있고 총명하였으며 자기의 견해에서 자유롭고 생활에서 명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고국에 와보면 품었던 의문이 다 풀어질것입니다.

저는 모든것이 안정되여있는 고국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있는 고국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고국을 왕래하고있습니다.

저는 고국인민들의 정당한 위업에 자신도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겠다는것을 결의다지게 됩니다.

로련 싸할린주 홀름스크시 《싸할린선원》신문사 박녹주

고국방문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서기장 조윤해일행이 주체사상탑을 참관하고 탑전망대에서 평양시를 부감하였다.



《범청학련》재중대표들 개선문 참관



해방산려관에서 여러가지 도서, 잡지를 보는 해외동포들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의장의 일행



천리마거리를 돌아보는 해외동포들

본사기자 김휘률

명 승

기 암 유 원 지



연화봉기슭에서 올려다본 줄다리



숙영각들



기암유원지 전경

기암유원지는 함경남도 리원군 기암리바다가에 자리잡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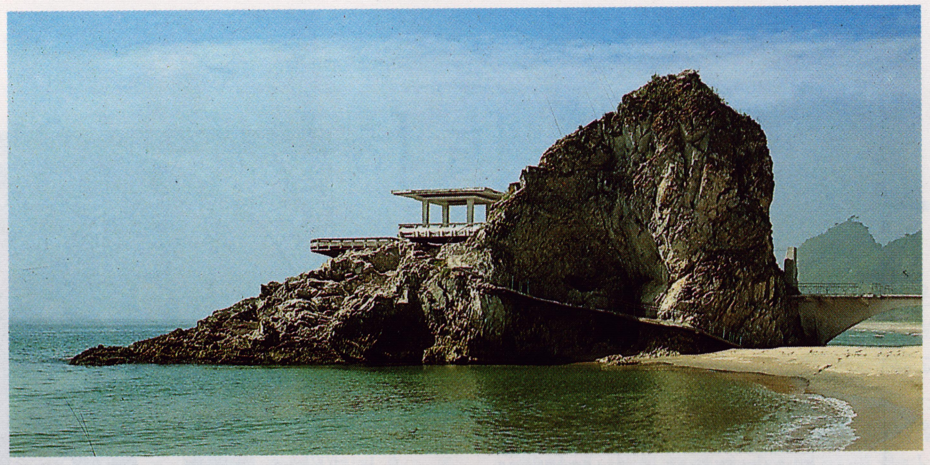
바다기슭에 기묘하게 생긴 바위가 있기때문에 이 일대를 예로부터 기암이라 불러왔다.

이와 같이 풍치아름다운 기암도 해방전에는 착취계급의 유흥지로 리용되였으므로 아름다운 자연풍치는 제대로 빛을 내지 못하였다.

1947년 9월 26일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암땅에 찾아오시여 경치가 참 좋은 여기에 휴양소를 건설하고 해수욕장도 잘 꾸려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해당화 붉게 피여 향기 그윽한 흰 모래불에는 방금 날듯한 경쾌한 지붕을 인 11개의 아담한 숙영각들이 특색있게 꾸려져 웃음소리, 노래소리 그칠사이 없다. 또한 해수욕장에는 울긋불긋 꽃천으로 쪽무이한 해가림막들이 《꽃밭》을 이루고 여름이 되면 해수욕과 해빛쪼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홍성거리고 있다.

본사기자 박강철



대바위



줄다리에서 내려다본 계곡



정각에서 내려다본 경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중국우표총공사에서 발행한 편지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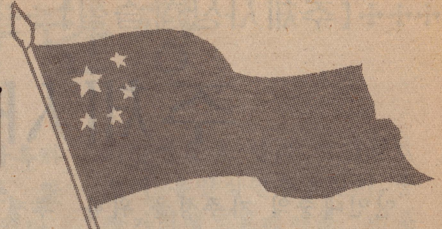




우의탑을 돌아보는 중국대표들

본사기자 정명준

형제의 정은 영원하리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45돐이 되는 날이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 영용한 투쟁을 벌려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인민의 장구한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였다.

중국에서 중국인민혁명이 승리하고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중국인민앞에는 새 생활창조와 진보에로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다음 지난 45년동안 근면하고 용감한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광활한 중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 새 중국을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지난날에는 응근 몇세기를 두고서도 할수 없는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지난 45년동안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언제나 서로 의지하고 단결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지지협조하며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

오랜 력사적뿌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다. 일찌기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뿌리내린 조중친선은 우리 인민의 어려운 조국해방전쟁시기 형제적중국인민이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지원군을 파견하여 우리의 투쟁을 피로써 도움으로써 더욱 공고발전되게 되였다.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조중친선은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하여왔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중국의 당 및 국가 령도자들사이에는 일찍부터 두터운 친분관계가 맺어졌으며 그것은 조중친선의 초석으로 되였다. 두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사이에 있은 친선적인 호상방문과 상봉은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날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고있는것은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동지적친분관계와 혁명적의리에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중국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뜻밖의 비보에 접하여 수령님을 추모하는 지난 애도기간에 우리 인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중국의 등소평동지와 당 및 국가 령도자들이 조전을 보내여왔으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붕동지 등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조의방문하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등소평동지와 강택민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을 우리 나라에 보내여왔으며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등소평동지와 당 및 국가 령도자들, 중앙기관들에서 화환을 보내여왔다.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어깨겯고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전 중국인민지원군 간부들과 중국의 당, 국가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도 비통한 마음을 안고 우리 나라 대사관을 조의방문하였다.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특집을 하고 수령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또한 애도기간의 마감날인 7월 20일에 천안문광장과 인민대회당, 중남해의 신화문, 외교부의 국기게양대들에 조기를 띄웠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하는 지난 애도기간에 중국인민들은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는 화환들과 진귀한 꽃들을 우리 나라에 수많이 보내여왔다.

중국의 여러 단위 일군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보내여온 수많은 화환과 꽃들 가운데는 우리 나라의 릉라도총회사, 봉화총국과 무역관계를 맺고있는 회사, 공사들에서 보낸 많은 화환들과 5만 5,700여송이의 진귀한 꽃이 들어있다. 여러 단위에서는 애도기간에 이어 수령님의 서거 한달에 즈음하여서도 많은 꽃들을 평양에 보내여왔다.

중국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추모행사에 쓰도록 정성껏 마련한 수많은 꽃들과 화환들을 보내온것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존경의 표시였으며 수령님께서와 중국의 령도자들이 마련하고 꽃피우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영원히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 두 나라 인민들은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전진하는 혁명의 길에서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이 앞으로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주체사상학습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8)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있는가. 바꾸어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어떤 력사적과업을 해결해야 하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룹니다. 사람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그러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왜 세가지 투쟁을 중요내용으로 하게 되는가.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이 사회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고 사람자체에도 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그리고 사람자체가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과 문화의 락후성에서 벗어나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때문에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진행되게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면 사회를 개조하는것이 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 나서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사회적존재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이 중요하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바 없고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것이나 같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를 개조하여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야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기때문이다.

그 리유는 또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해야 사람이 자연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날수 있고 사상문화적으로도 발전할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날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게을러서 그처럼 가난하게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식민지인민들은 누구보다도 뼈빠지게 일하였다. 그런데도 가난하게 살지 않으면 안된것은 남에게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 자기가 창조한 모든것을 빼앗겼기때문이다.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이 나라들은 생산력이 비교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는 나라들인데 로동자, 농민들이 생산력이 발전한것만큼 잘사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지 못하면 생산력이 높이 발전되여도 인민들은 그 혜택을 누릴수 없다는것이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잃고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민대중은 사상문화적으로도 발전할수 없다.

사람이 사상문화적으로 발전하자면 옳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옳은 교육을 받을수 없다.

오늘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소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한것이다. 법으로 《의무교육》이 선포된들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할수 없는 형편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제도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담보를 가지는것이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한 조건에서 인민을 위한 참다운 무료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이 참으로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것으로 되자면 인민대중이 교육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예술을 비롯한 사상문화적수단들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이 인민의 사상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자면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여 그 소유자, 향유자가 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로동으로 창조한 물질적부의 주인이 되고 사상문화적으로 발전하자면 무엇보다도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력사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자. 착취와 억압이 생겨난 이래 인류사회가 걸어온 전력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력사였다. 즉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회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여왔고 사회가 발전해왔으며 력사가 전진해왔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기전까지는 사회제도가 몇번씩 바뀌면서도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주성을 위한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전진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착취와 억압은 없어지고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면 사회만 개조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가. 그런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원인은 사회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있고 사람자체에도 있다.

그런데 자연이나 사람 자체가 가지고있는 이 요인은 사회를 개조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투쟁할뿐아니라 자연도 개조하고 사람자체도 개조하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석탄생산기지 — 신창탄광



하루계획을 넘쳐할 일념으로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창탄광은 평안남도 은산군 재동로동자구에 자리잡고있다. 예로부터 이곳 재동은 땅속에 석탄이 많이 매장되여있어 재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신창탄광일대에는 령대탄광, 송남청년탄광을 비롯한 굴지의 탄전들이 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미 1927년경에 평안남도 북부탄전의 지질도를 완성하였으며 1934년부터 신창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해방전 이곳 탄부들의 생활은 비참하였다.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는 《오소리굴》처럼 좁은 마구리에서 탄부들은 곡괭이로 탄을 캐여 등짐으로 나르며 하루 16시간이상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했다. 어두운 막장에서 일하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그렇게 일하고도 그들은 《함바》에서 새우잠을 자며 대두박으로 끼니를 에워야만 하였다.

일제는 이곳의 질좋은 석탄을 더 많이 강탈해갈 목적으로 재동까지 철길을 늘였으며 패망전까지 백수십만톤의 석탄을 빼앗아갔다.

탄부들의 새 생활은 해방(1945. 8. 15)후부터 시작되였다.

해방후 나라의 주인, 탄광의 주인으로 된 이곳 탄부들은 일제가 파괴한 탄광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1946년에 벌써 14만 7천여톤의 석탄을 캐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전국의 모범로동자들을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곳 한 탄부의 로력적성과를 축하해주시고 나라의 동력초소를 지켜선 혁명가,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그후 그를 공부시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광산로동자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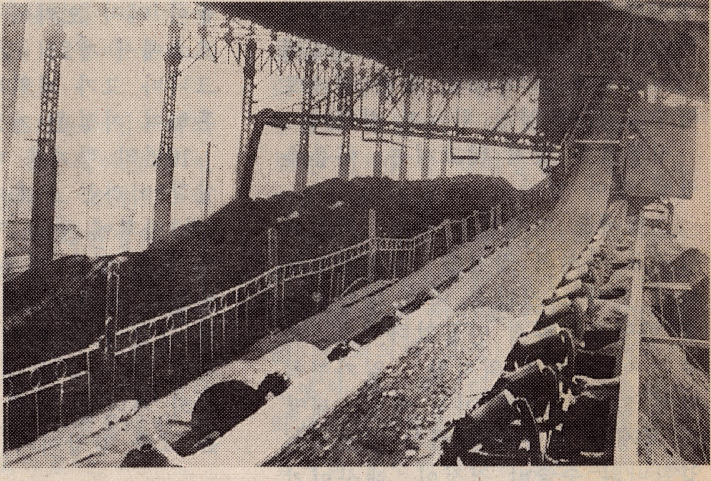
이것은 한 탄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전체 신창탄광 탄부들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였다.

이곳 탄부들은 이 믿음과 사랑에 석탄증산으로 보답하였다. 석탄생산은 해마다 늘어나 1949년에는 40여만톤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950. 6~1953. 7) 참혹하게 파괴되였던 탄광은 짧은 기간에 복구되였다. 나라에서는 자원탐사사업을 강화하고 석탄생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리고 수백명의 제대군인청년들을 보내주었고 버력적재기, 사슬콘베아, 압축기를 비롯한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보내주었다.

탄부들의 비등된 열의에 의하여 탄광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1957 ~ 1961)을 1년 9개월이나 앞당겨 끝내였다.

이 시기부터 이곳 탄광은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탄광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생산된 석탄은 저탄장에 쌓이고있다.

그후 탄광에서는 석탄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이곳 기술자들은 탄부들과 합심하여 탐사와 갱건설 그리고 채굴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와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을 수많이 도입하였다.

한편 이들은 장벽식탄캐기법을 비롯한 앞선 탄캐기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였으며 유압식연층굴진기, 중장거리벨트콘베아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오늘 이 탄광의 한해 석탄생산량은 1946년에 비해 14배나 늘어났다.

탄광에는 이곳 탄부들을 위하여 장공장, 식료공장, 오리목장, 농장, 과수원, 온실을 비롯한 후방공급기지가 꾸려져있다.

탄광마을에는 신창공업대학, 로동자문화회관, 병원과 편의봉사망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년산 3,000톤능력의 건재생산기지까지 있어 갱건설과 살림집건설을 자체로 계획적으로 하고있다.

신창탄광은 이미 1972년 4월에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다.

이곳 탄부들은 지난 4월 전국석탄공업일군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 결의를 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로 준

빨찌산의 딸 김지현의 외로운 투병

남조선잡지 《말》 4월호에 이 잡지의 객원기자(명예기자)로 있는 《통일의 꽃》 림수경이 쓴 《빨찌산의 딸 김지현의 외로운 투병》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김지현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인모동지와 함께 지리산에서 싸웠던 조선인민군 병사의 딸이다.

김지현은 리인모동지가 34년의 옥고를 치른후 뇌출혈로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사경에서 헤매고있을 때 두달동안이나 휴직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의 병구완을 해준 처녀이다.

지현이의 이러한 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리인모동지의 수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있다.

그런데 29살의 처녀인 그가 지금 위급한 병에 걸려 기궁한 신세에 놓여있다.

그의 정상이 못내 가슴에 걸려 림수경이 잡지에 글을 낸것이다.

그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빨찌산의 딸》 김지현

분단현실이 존재하고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빨찌산의 딸》과 만났다.

스물아홉살나이의 김지현.

그는 지금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본관 10층 22호에 누워있다. 결핵성농양이 그의 뼈속에 깊이 파고들어 갈비뼈를 잘라내고 화농제거수술을 해야 했다. 척추근처에까지 화농이 번지는통에 그의 여윈 몸은 제대로 펼수도 없어 약간 휘여진 상태다.

진통제를 맞지 않고서는 아픔을 견딜 길이 없다.

그럼에도 김지현은 당장 퇴원하겠다고 나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린 담당의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 리유는 이 사회에 의지할 일가친척 한명 없고 오히려 아직 어린 세명의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그로서는 입원비와 수술비 걱정이 태산이기 때문이였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것처럼 빨찌산의 딸이다. 그의 아버지 고 김병주씨는 1926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태여났다.

일제때부터 항일운동에 눈을 떴고 6.25와중에 인민군으로 남하하였으나 미군의 인천상륙으로 퇴로가 끊기면서 지리산에 입산, 비전투원으로서 빨찌산활동을 했다. 이때 그는 지난해 북에 송환된 전 인민군종군기자 리인모씨와 함께 활동했다.

그는 1954년에 체포되였다. 전쟁포로로서 일찌기 고향으로 송환되여야 마땅했으나 빨찌산활동을 리유로 결국 법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북《한》출신의 그에게는 단 한명의 면회객도 없었고 그는 다른이들보다 훨씬 혹독하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1972년의 《사회안전법》 제정으로 이미 형기가 만료된 다수의 장기수들이 다시 오라에 묶여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제2의 감옥살이를 할 때 그나마 그가 제외된것은 출소후 결혼하여 가정을 가졌기때문이였다.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반공만이 살길》이라는 구호가 란무하는 남《한》사회에 발을 딛게 된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막로동과 로점상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그는 1966년에 역시 외로운 처지의 한 녀성과 결혼을 했고 2남2녀의 자녀를 두게 되였다. 김지현은 그중 맏딸이다.

리인모씨의 병상을 지켰던 두달

이 땅에서 붉은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던가. 게다가 의지할 피붙이 하나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들부부는 닥치는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가난을 면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김병주씨의 곧은 성품때문이기도 했다.

1988년 리인모씨가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해 과천의 양로원에서 기거할 때 김병주씨는 그와 거의 40년만에 재회했다.

《아버님은 할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지 못하는것을 늘 괴로와하셨습니다.》

방이 두개밖에 없어서였다. 김씨는 자녀들을 다락에 재우고 리인모씨를 모시려했으나 이를 눈치챈 리인모씨가 절대 모사해 불발로 그쳤던 일도 있다.

결국 조국의 통일도 자식들이 다 자라는것도 보지 못한채 부부는 간암에 걸려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졸지에 가장이 된 김지현은 어렵게 세명의 동생들을 부양해왔다. 그러면서도 1991년 리인모로인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그는 직장까지 휴직하고 두달여동안 리인모로인을 정성스럽게 간병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리인모로인은 고향인 북으로 송환되여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있지만 이번에는 그를 간호하던 김지현이 병상에 누워있다. 그러나 김지현은 간호해줄 부모님은커녕 찾아주는 일가친척 하나 없이 외로운 투병생활을 하고있다.

그는 1992년 6월에 림파성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다. 그러나 고된 생활때문인지 결핵은 완치되지 못한채 재발하여 지난해에는 륵골결핵으로 갈비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척추부근에까지 염증이 번져 두달넘게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진통제없이는 아파서 견딜수 없는 지경임에도 김지현은 자신의 아픔보다는 집안일을 걱정하고있다.

4월이면 군에 입대하는 남동생걱정, 어린 동생들의 생활걱정,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무섭게 올라가는 입원비와 수술비가 그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김지현을 살리는 모임》

대부분이 수십년 복역한 장기수들인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김지현을 살리는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장기수들이 운영하고있는 민중탕제원에서는 그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며 보다 좋은 처방을 위해 늘 고심중이다. 진관스님은 그를 돕기 위해 학그림을 그려 판매하기도 했고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펴고있다. 또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로조원들은 김지현의 병원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각별한 따뜻함으로 보살펴주고있다. 이 모두가 김지현에게는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다.

조국통일에 청춘을 바쳤던 빨찌산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죄아닌 《죄》로 분단의 아픔과 랭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이 젊은이. 천애고아와 다름없는 처지로 병마와 싸우고있는 이 젊은이를 살리기 위해 많은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봄이 다가오고있다. 봄비도 내렸고 들녘의 작은 꽃망울도 살짝 얼굴을 내밀고있다. 우리에게 찾아든 봄은 이 젊은이와 함께 해야 하는 책무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몫이리라.

지독한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도 진정 봄날의 따사로움이 찾아들것을 기대해본다. 병마의 고통도 생활고도 랭대도 분단의 아픔도 없는 그런 세상의 따사로움이…

겨레의 지향

민족대단결정신을 따라

미주 및 구라파 지역의 교포단체들과 교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올해를 민족대단결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조국통일북미주협회, 한봉우리회를 비롯한 미주지역의 교포단체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삼가 올린 편지들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적극 지지하는 자기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미주위원회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찬동하는 공보를 지난해 12월과 올해초에 거듭 발표하였다.

공보들에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관통되여있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주체의 민족관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 대단결의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것으로 하여 사상과 리념, 소속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통일북미주협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민족공동의 목표와 리념, 대단결의 원칙과 방도들이 명시되여있는 이 강령은 민족분단을 끝장낼수 있게 하며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고 우리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4월 수령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로스안젤스에서 있은 축하회에 참가한 재미주체사상연구회 회장 선우학원은 축사를 통하여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해외동포들은 **김일성**동지의 민족대단결정신을 따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중립화되고 비핵화된 조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워싱톤에서는 각계 교포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밑에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집회가 진행되였으며 버클리에서는 제3차 코레아평화통일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해외교포단체들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널리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독일에 있는 교포단체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강령의 내용을 해설한 《민족단합의 대헌장》, 《민족통일론의 새로운 전개》 등 책자들을 만들어 교포들속에 배포하였다.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에서 발행하는 잡지 《조국은 하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의의와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민족대단결에 저촉되는 외세의존정책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원칙을 구현해나가는것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잡지는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민족단합과 통일애국의 기치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민족의 절절한 소원인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령남521호수산협동조합을 찾아서



남포교외의 광량만기슭에 령남521호수산협동조합이 자리잡고있다.

이 수산협동조합은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을 잘하여 전국에 소문이 났다.

얼마전 우리가 이 조합을 찾아갔을 때 부두는 바다에서 돌아온 배에서 물고기를 부리는 작업으로 흥성이고있었다.

배의 어창에서 쉼없이 퍼올리는 물고기가 밀차에 실려 가공실과 랭장고로 운반되는 광경을 흐뭇해서 바라보던 우리는 이 조합의 젊은 일군인 비원목을 만났다.

그는 해풍에 탄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 협동조합은 원래 토대가 빈약하고 물고기생산에서도 별로 이름이 나지 못한 자그마한 생산단위였다.

이러했던 조합이 점차 자기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기 시작한것은 20여년전 관리위원장 리재근동무가 와서부터였다.

관리위원장은 조합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는 사업의 첫 공정을 현대적인 고기배를 마련하는데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우에다 제기하여 자재와 설비를 받을수도 있었지만 자체로 모든것을 풀어나갈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나라의 동서해변과 여러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되살려쓸만한 선체와 기관, 부속품들을 끌어들이였다.

이와 함께 배수리기지를 꾸리고 물고기가공시설을 갖추는 사업도 힘있게 내밀었다.

크고작은 배가 무어지고 가공시설이 그쯘하게 갖추어지자 조합에서는 물고기잡이에 힘을 집중하였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내자면 중소어업과 세소어업을 배합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해류의 변화와 어장의 이동상태, 계절의 특성에 따르는 바다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했다.

관리위원장은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어군탐색도 하고 해류현상과 물고기특성을 관찰하여 과학적인 어장위치도를 만들었으며 계절에 따라 회유하는 물고기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물고기잡이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조합에서는 겨울철에 연해의 조개, 굴, 이른봄부터 여름까지는 송어, 전어, 까나리, 가을에는 멸치, 꽃게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를 잡아 근 20년간 해마다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우리는 비원목동무의 안내를 받아 조합수리기지를 돌아보았다.

조합의 특성에 맞게 꾸려진 수리반에 놓여있는 선반과 볼반, 전기설비 등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조합의 고기배들과 가공설비들에서 제기되는 수리를 자체로 해주며 여러가지 어구도 만들고있었다.

우리의 관심을 끈것은 물고기가공반이였다.

이곳 조합에서는 잡아온 물고기를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젓갈품, 물고기의 건조, 절임, 랭장의 모든 가공설비가 튼튼히 꾸려져있었다.

우리가 젓갈품가공반에 들어갔을 때 작업장 가공반녀인들이 조개젓이며 멸치젓, 새우젓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가공반 반장은 자기들이 만든 젓갈품들이 최근 전국수산부문 젓갈품품평회에 나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100여톤의 얼굼능력을 가진 랭장고에는 숭어며 전어, 까나리며 새우 등 갖가지 물고기가 꽉 들어차있었다.

중년의 랭동기운전공녀인은 남포시의 수산물상점과 급양망에서 요구되는 물고기의 많은 량을 자기들이 공급하고있다고 긍지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우리는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풍어기를 날리며 금방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두로 나갔다.

잡아온 물고기를 부리우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속에서 우리는 이곳 관리위원장 리재근동무를 만났다.

환갑이 지난 오늘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군하는데 건강에 일없는가고 묻는 우리의 말에 관리위원장은 젊은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로 나갈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면서 바다는 자기에게 젊음을 주는 활무대라고 하였다.

과연 그의 얼굴과 몸에서는 젊은이들한테서 볼수 있는 로동의 희열과 기쁨을 느낄수가 있었다.

관리위원장은 조합의 책임기사를 불러 새 어장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배들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 출항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우리는 부두에서 어로공들과 함께 또 배에 오르는 리재근관리위원장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본사기자



고향소식 동림폭포가 있는 땅

평안북도 동림군의 소재지였던 고군영리에는 통주성과 관서8경의 하나인 동림폭포를 비롯한 력사 유적과 유물, 명승지들이 있다.

애국심이 강한 이곳 인민들은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언제나 용감히 싸웠다. 고려시기인 1010년 40만의 대군이 통주성을 점령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이곳 방어자들은 외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때 고려의 강조장군을 체포한 적들은 그를 귀순시키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악에 받친 놈들은 강조의 두눈알을 뽑았다. 그러나 그는 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웃으면서 고국산천이 더 밝게 보인다고 웨침으로써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그후 외적들이 또다시 이 성을 침입하였을 때에는 부상병들을 치료하던 손간이라는 군의가 적의 배후를 습격하여 200여명을 소멸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통주성을 피로써 지켜싸운 군민들의 무훈담은 그후에도 수많이 기록되여왔다.

동림폭포가 있는 바위에는 《세 공자를 준대도 이 강산과 바꾸지 않으리라》는 시가 새겨져있는데 이것은 이곳 인민들이 자기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알수 있다.

조선을 강탈한 일제는 이곳에서도 력사 유적과 유물을 파괴하거나 략탈해갔으며 애국적인 모든것을 무참히 짓밟았다. 대대로 제 고향을 지키며 화목하게 살아온 이곳 주민들은 참을수 없어 들고 일어났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들의 저항력은 약했다. 울분에 몸부림치던 그들은 망국의 설음안고 하나둘 정든 고국산천을 떠났다.

그때 해외에로 흘러간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동림읍사무소 지도원 자기순의 부모들도 그무렵에 압록강을 건너갔다. 그의 동생 자봉선은 지금 중국 흑룡강성 화천현 장천향에서 살고있다.

동림읍을 떠난 동포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모습이란 양조장과 정미소, 잡화상 그리고 몇채의 오막살이가 있은 한적한 마을일것이다. 얼마나 산골이였으면 나무들이 무성한 야산에는 한낮에도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겠는가.

해방(1945.8)후 오늘의 동림읍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였다. 오늘 이곳에는 10여개의 중앙공업공장들과 3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마광기, 적재기, 감속기 등 채취설비들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고있다.

군내에 매봉저수지를 비롯한 여러개의 저수지들이 새로 건설되였고 관개망은 그물처럼 뒤덮이였다.

도처에 양수장들이 건설되여 바다로 흐르던 청강이 꺼꾸로 흘러 산등성이밭들까지도 가물을 모르게 되였다. 지난날 알곡을 정보당 1톤도 못내던 논밭들에서 오늘은 8톤, 9톤 이상씩 수확하고있다.

새몰골, 초막골, 퉁퉁고개로 불리우던 사람못살 부락들에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1960년대말부터 군소재지에서는 아빠트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는데 최근 3년간에만도 300여세대의 살림집이 완공되여 제대군인들과 단층집에서 살던 주민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읍지구의 면모가 달라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니 인구도 불어났다. 25년전에 비해 읍내의 인민반수는 170여개나 더 늘어났다.

현대적인 목욕탕이 건설되였으며 수천석의 수용능력을 갖춘 체육관이 건설되여 국가적인 체육경기들도 이곳에서 자주 진행된다.

야산마다에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밭이 새로 조성되여 과수농장이 생겨났고 남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농장이 꾸려졌다. 이곳은 과일과 남새 공급이 잘되는 소재지로 소문나있다.

산에는 도토리, 머루, 다래를 비롯한 산열매들과 도라지, 버섯 등 산채가 많고 조선서해와 가까이하고있어 조개, 전어, 멸치, 게 등 어물이 풍성하다.

락수를 한번 맞으면 곱사등이도 등이 펴진다는 전설도 있고 물이 구슬같이 맑다고 하여 《옥포》라고 불리우는 동림폭포주변은 경치가 아름다와 군내 주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동림읍을 찾은 해외동포들은 누구나 어리둥절해하군한다.

얼마전 고향을 방문한 읍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통계원 김세근의 아버지(아르헨띠나에서 살고있음)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고향은 천지개벽하였습니다. 내가 찾아볼수 있는 고향의 옛 모습은 저 통주성터와 동림폭포뿐입니다.》

동림땅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여! 고향땅에 와보시라. 그러면 그네들도 력사유적이나 명승지만이 아닌 고국의 오늘의 변모된 현실에서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더욱 느끼게 될것이리라.

본사기자



방문기

강철생산기지—8호제강소

고산지대의 특유한 산천경개를 마치 한폭의 그림에 담은듯 흔히 볼수 없는 명당자리에 위력한 강철생산기지—8호제강소가 자리잡고 있다.

시원스레 탁 트인 포장도로를 따라 우리가 제강소구내에 들어서니 갖가지 색갈로 외벽을 장식한 특색있는 산업건물들이 눈앞에 안겨오고 공지마다 잣나무, 가문비나무, 향오동나무 등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있었다.

우리를 반겨맞은 이곳 기사장은 생산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면서 먼저 여기에 이렇듯 훌륭한 제강소가 일떠서게 된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용철강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8호제강소 건설을 발기하시고 빠른 시일안에 끝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제강소건설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1988년 4월 13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이 제강소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한없이 숭엄한 감정으로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강철직장에 들어섰다.

쇠물이 사품치는 전기로들은 쉼없이 용을 쓰고 로주위에는 현장분석실이며 지령실, 전기조작실이 아담하게 자리잡고있었다. 눈여겨 살펴보니 전기로의 조절과 주원료, 부원료의 계량을 자동장치들과 계기가 대신해주고 원료의 장입은 기계가 맡아해주고있었다. 용해과정에 분석자료들은 산업텔레비존을 통하여 용해공들이 볼수 있게 되여있었다.

맑고 시원하고 먼지 한점 없는 용해장이였다.

6년전 그날 이 강철직장을 찾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2호전기로앞에 이르시여 몸소 보호안경을 드시고 로안을 들여다보시면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헤아려보시고 앞으로 4호전기로앞에 련속조괴기를 한계렬 더 놓자고 그 자리까지 잡아주시였다.

언제나 우리 로동자들의 건강을 먼저 념려하시는 그이께서는 이날 제강소의 제진장치가 손색없이 꾸려진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사실 8호제강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와 배려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상원땅에 대규모의 세멘트생산기지와 함흥, 안주, 피현 등에 씨리카트벽돌생산기지들과 함께 철강재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릴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이 제강소를 제철제강부문의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세우도록 하는데 모든것을 아낌없이 배려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제강소의 모든 일터가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고 제진장치가 완전무결하게 되여 언제나 맑은 공기만이 흐르게 된것이다. 강철직장만 해도 여러대의 제진기들이 용해과정에 나오는 먼지, 오염된 공기, 가열된 공기를 말끔히 빨아들이고 제강소옆으로 흐르는 큰 강 한가운데의 물우에서 맑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다가 작업장에 불어넣어주어 작업장안의 공기가 언제나 맑다는것이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용해장의 공기는 산업시설이 전혀 없는 지대의 공기처럼 맑다는것이 확증되였지요. …》 기사장의 말이였다.

우리는 마침 출강을 앞둔 2호전기로에 이르렀다.

로장을 비롯한 30대안팎의 젊은 용해공들이 전기로를 능숙히 다루고있었다.

드디여 출강시간이 되자 신호종소리와 함께 주홍빛쇠물이 폭포처럼 쇠물바가지에 쏟아졌다.

기사장의 말에 의하면 이곳 강철직장의 용해공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크나큰 슬픔과 비애를 힘과 용기로 바꾸어 최근 달마다 강철생산계획을 120~150%로 넘쳐 수행한다고 하였다.

용해공들의 얼굴마다에는 강철증산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굳은 신념과 의지가 넘쳐 흘렀다.

우리는 강철직장과 잇닿은 압연직장으로 향하였다. 압연직장 종합조종실에 이르니 조종공들이 열심히 자동계기들을 살피고있었다. 큰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넓은 직장안에 수백메터에 달하는 만능압연기의 움직임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곳 압연직장에서는 가열온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자동화된 생산공정의 특성에 맞게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압연실수률을 더욱 높이고있다고 한다.

기중기들이 여러가지 이형환강퉁구리들과 고주파용접관을 비롯한 압연강재를 연방 물어나른다. 잠간사이에 강재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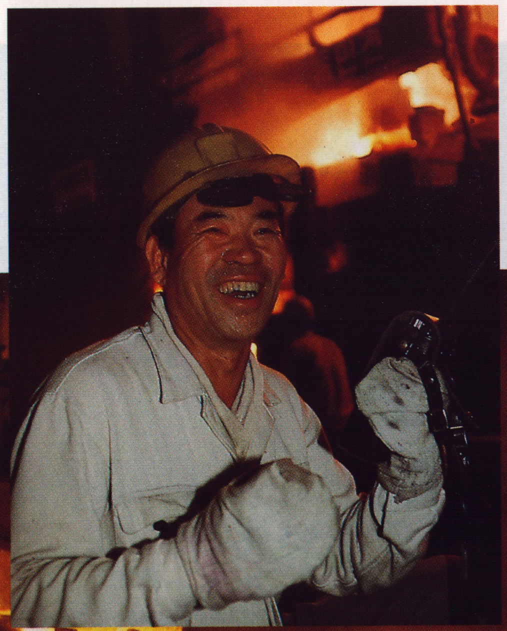
기사장은 생산수자를 설명하면서 요즘 강철과 압연강재 생산이 제강소의 조업이래 최고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날 우리는 이 제강소의 웅장한 문화회관과 병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돌아보았다. 모든것이 도시부럽지 않게 꾸려져있었다.

제강소 맞은편 나지막한 산기슭에는 5층, 7층 짜리 씨리카트벽돌살림집들이 키돋움하며 무리지어보였는데 제강소로동자들의 살림집들모두가 공장에서 나오는 페열로 중앙난방화되였다고 한다.

참으로 8호제강소의 모든 일터마다 그 어데나 할것없이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사랑과 은덕이 뜨겁게 어리여있음을 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금숙



용해공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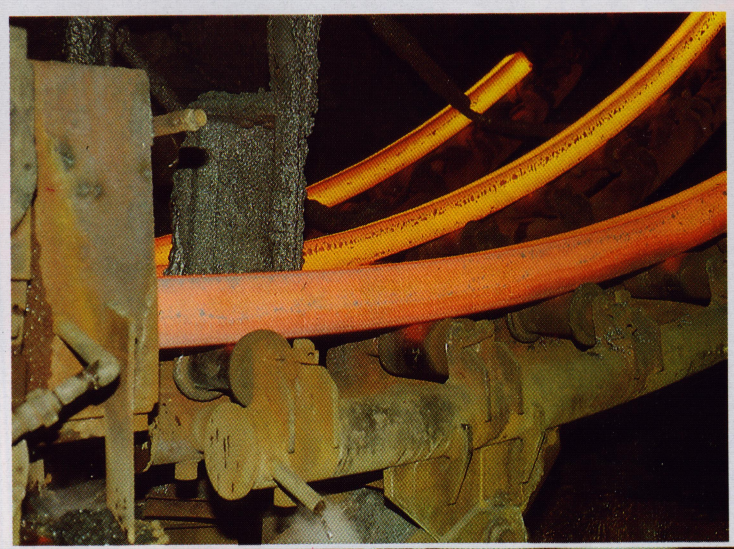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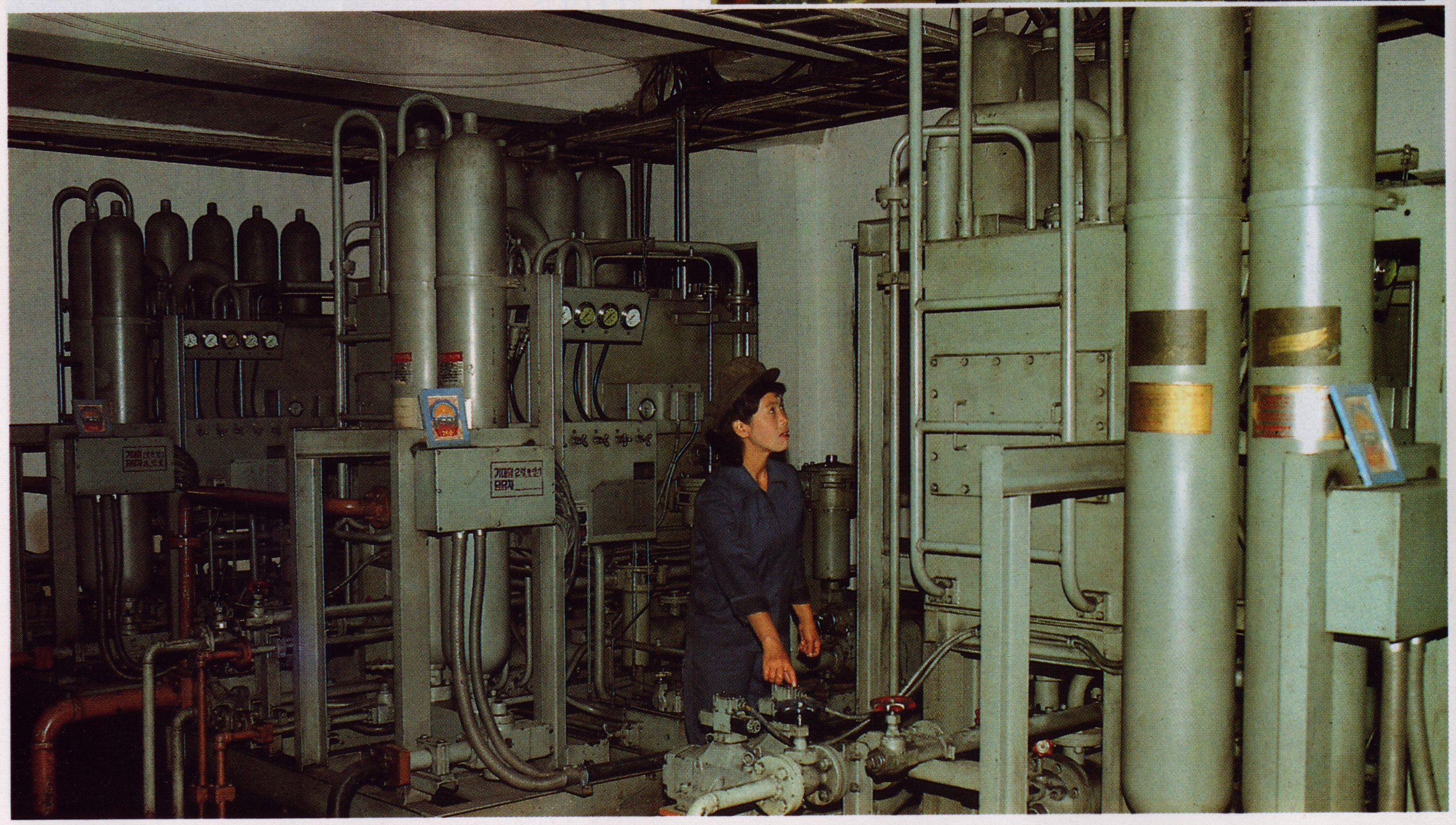
강피적재장



전자계산기에 의한 조종



런속조피



조피직장 내부

압연직장 내부





더 많은 강재를

본사기자 김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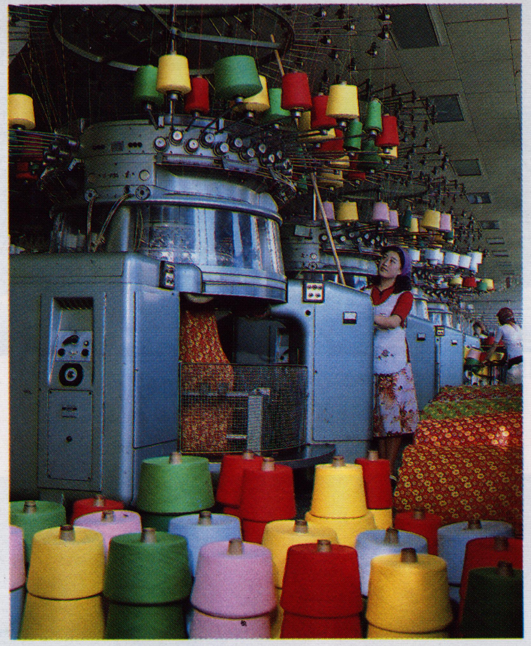


로동자들의 주택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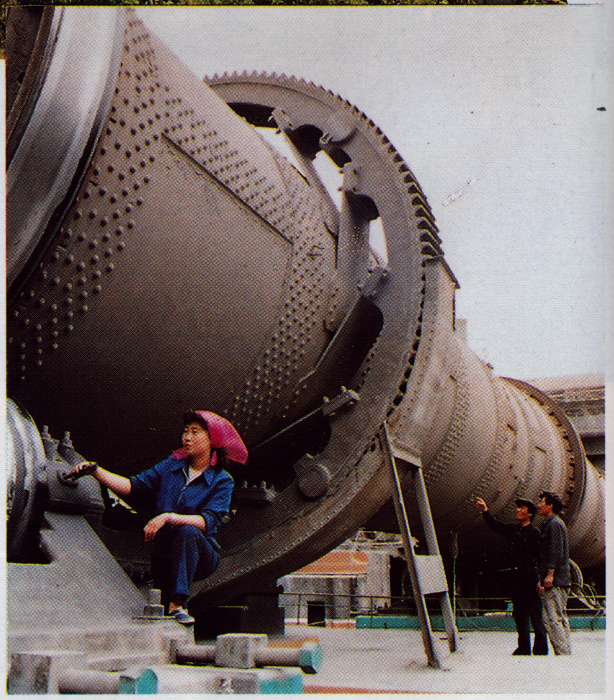
도시소개

해 주 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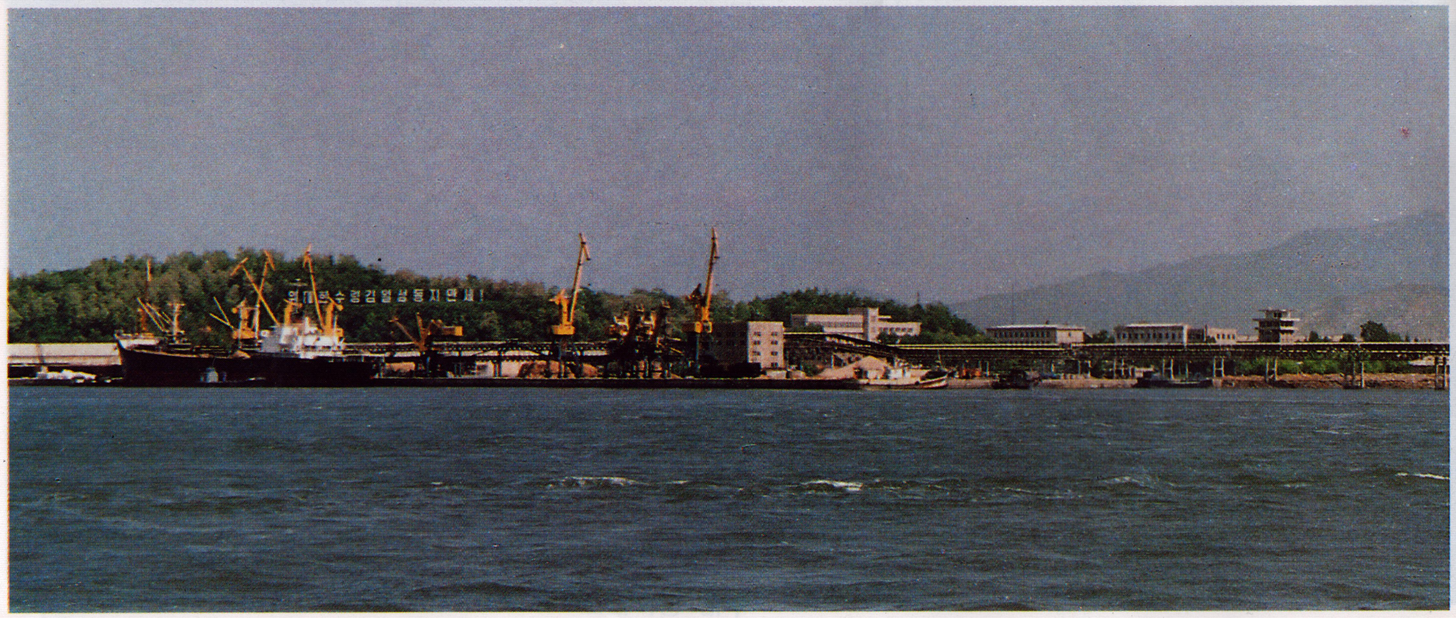




해주편직물공장



해주세멘트공장의 일부



해주항의 일부

본사기자 남용일

해주시는 황해남도의 소재지로서 도의 남부 조선서해의 해주만연안에 자리잡고있다.

이곳은 고구려때 내미홀군, 후기신라때 폭지군, 고려때 해주목으로 불리웠다.

1895년에 군으로 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해주부로서 당시 황해도의 소재지였다.

해방후에도 황해도의 소재지였는데 1954년 10월 황해도가 2개의 도로 나뉠 때 황해남도의 소재지로 되였다.

현재 해주시의 행정구역은 25개의 동과 4개의 리로 되여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평양, 개성, 서울 등 국내주요도시들과는 물론 바다건너 다른 나라들과도 경제문화적으로 련결된 발전한곳이였다.

해방전에 이곳은 무질서하고 비문화적인 자그마한 소비도시였다.

공장이라고 해야 기계설비가 락후한 세멘트공장과 군수공장이 있었을뿐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곳을 통하여 황해도일대에서 나는 기름진 쌀과 귀중한 지하자원을 수많이 략탈하여갔다.

조국해방전쟁(1950 ~ 1953)시기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해주시는 오늘 경제문화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을 가진 공업도시로, 수양산남쪽기슭 아름다운 바다가의 자연경치에 어울리게 새로운 거리들이 형성되고 곳곳에 학교와 병원, 문화회관, 공원과 유원지가 조화롭게 배치된 아담한 항구문화도시로 전변되였다.

이곳 경제는 건재, 화학, 기계, 금속 등 중공업과 식료품, 일용품, 방직 및 편직, 유리와 도자기 등 경공업 그리고 농업과 수산업으로 이루어져있다.

기계공업은 해방후 새로 발전한 공업부문의 하나이다.

시에는 련결농기계공장, 뜨락또르부속품공장, 관개기계종합공장, 전동기공장 등 우리 나라 굴지의 알곡생산기지인 황해남도의 특성에 맞게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여러 공장들이 있다.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꾸려진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성능좋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고있다.

이 공장에서 만든 벼종합수확기는 하루에 여러 정보의 벼를 베면서도 탈곡과 정선도 하며 벼짚을 썰어서 논에 펼수도 있고 모아놓기도 하는 능률적인 농기계이다.

시에서는 중앙경공업과 함께 지방산업공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최근년간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질이 훨씬 높아졌다.

해주항은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이 기계화, 자동화된 무역항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28년초부터 1936년초까지 2차례의 개수공사를 하여 보잘것없는 해주항을 건설하였다.

당시 항으로는 3천톤급의 배가 겨우 들어올수 있었다.

오늘 해주항은 수십만평방메터의 부지에 싸이로, 지대상선기, 항만기중기, 탑식기중기 등 항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무역항으로 발전하였다.

해주세멘트공장으로부터 해주항을 련결하는 장거리벨트콘베아가 건설되여있으며 세멘트상선작업의 자동화가 실현되였다.

항에 있는 종합지령실의 지령에 따라 배에 화물을 싣거나 부리우기 위해 항만기중기가 움직이고 지게차가 오가며 벨트콘베아가 가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해주시는 황해남도의 철도운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해방전 이곳에는 해주—토성, 해주—신원, 해주—옹진 사이의 좁은 철길이 있었는데 그 기술장비수준은 매우 뒤떨어져있었다.

전후 철길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역을 개건확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졌다.

해주—하성사이의 200리구간의 좁은 철길은 1958년 8월 청년철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넓은 철길로 바꾸어지게 되였다.

순식간에 5만산, 7만산이 날아나고 날이 새면 강물줄기가 돌아서는 비약의 나날속에 3~4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를 단 75일동안에 완공하였는데 이 기적적인 건설속도는 우리 나라 청년철도건설자들의 영웅서사시로 년대기에 기록되였다.

오늘 시안에는 해주—사리원, 해주—옹진, 해주—부포, 해주—은빛사이의 철길이 있다.

해주시의 농업은 도시주민들을 위한 부식물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산업, 축산업, 가금업, 과수업, 잠업을 망라한 여러 부문을 다 갖추고있다.

시농업생산에서는 남새, 고기, 알, 젖 등 부식물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해주시는 조선서해안의 주요수산기지의 하나이다.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해마다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있다.

항구문화도시 해주시는 더욱 살기 좋은곳으로 변모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남용일

라진의 다시마

우리 나라 조선동해의 북부 라진만일대는 다시마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다시마는 여러해살이 바다나물이다.

길이는 한해에 1~2메터, 두해에 2~3메터, 지어는 6~7메터에 이르는것도 있다.

다시마에는 만이트 23.4~24.4%, 알긴산 17~22.5%, 라미나린 0.6~1.3%, 요드 0.3%, 조단백질 8.9~10.2%, 기름 0.8~1.3%가 들어있다.

우리 나라 동서해에서 다시마가 많이 생산되지만 라진일대의 바다가에서 나는 다시마는 특이한 맛과 냄새를 가지고있다.

이곳 다시마는 동맥경화증에 특효가 있으며 장수식품으로 리용되고있다.

이고장 사람들은 다시마로 튀기나 나물, 볶음을 즐겨 해먹는다.

기행－동해기슭을 따라

흥남공업지구

홍원땅을 지나니 해안선이 남쪽으로 펴지면서 호수처럼 아늑한 락원만이 나타났다. 이곳 역시 경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바다기슭의 언덕에는 푸른 소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었고 맑고 푸른 바다는 유별나게 물결도 잔잔하였다. 이곳에도 수산사업소와 바다가양식사업소가 있어 가까운바다에서 무진장한 수산자원을 걷어들이고있었다.

락원만을 나오면 해안선은 다시 서쪽으로 굽어드는데 풍치아름답기로 이름난 마전유원지의 해수욕장이 펼쳐진다.

록음우거진 숲을 머리에 쓴 기암절벽이 바다에서 솟아난듯 우뚝 서있는 등대봉을 에돌면 공도 함흥의 웅장한 모습이 아득히 바라보인다.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뒤로 즐비하게 일떠선 탑식주택들과 흥남비료련합기업소며 룡성기계련합총국 등 여기 공업지구의 건물들이 함흥만의 주변에 가득 들어앉았고 흥남항부두에는 수많은 대형짐배들이 짐을 싣고부리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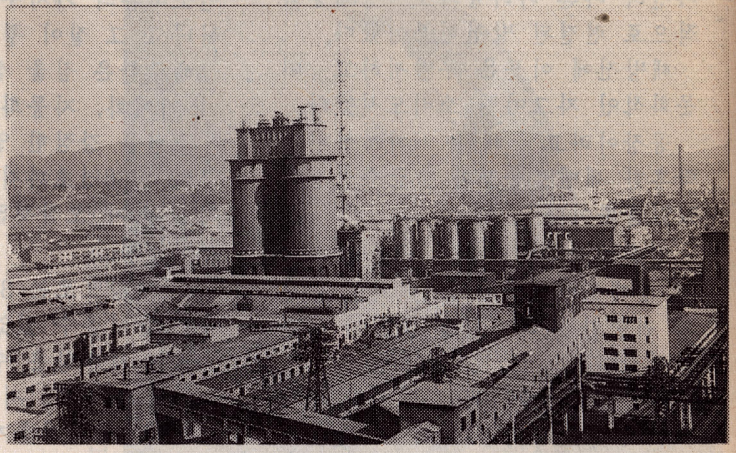
아찔하게 솟아있는 립상화탑이며 은빛으로 눈부신 무수한 가스탕크들, 멀리 해방산마루까지 뻗어간 아름드리 공기취입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우리 나라 화학공업의 위력을 시위하듯 여기 동해기슭에 거연히 솟아있다.

련합기업소 기사장은 지금 공장이 비료생산에서 만부하를 걸고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제침략자들은 해방전에 우리 나라에서 식량자원을 더 많이 략탈해갈 목적으로 여기에 비료공장을 건설하였는데 락후한 설비와 각종 유해가스로 인하여 혹사당한 우리 로동자들이 그때는 제명을 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해방된 이듬해 봄인 1946년 4월, 흥남비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의 주인된 우리 로동계급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이 공장을 나라의 위력한 자립적화학공업기지로 꾸려주기 위하여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이 공장에서 류안비료뿐아니라 여러가지 비료를 다 생산하며 전기가 많이 드는 전해식방법으로가 아니라 무연탄으로 수소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언제나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부

로동계급을 가장 귀중히 여기신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유해로동이라는 말조차 없애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비들을 개조하도록 하시고 로동자들의 주택마을을 풍치아름다운 산기슭에 앉혀주시고 동해기슭에 휴양소와 정양소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이미 오래전에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정을 확립하고 갖가지 비료를 다량생산하여 오늘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비료공장을 나선 우리는 바다가슭에 펼쳐진 《어머니공장》으로 소문난 룡성기계련합총국으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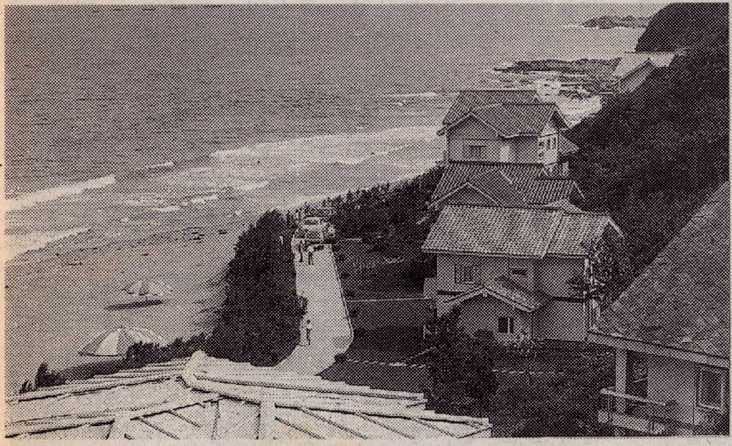
현세기 50년대말～60년대초 조선을 빛내인 그 력사적인 혁명적대고조시기 시대의 사명을 자각한 로동계급의 대담성으로 8메터타닝반, 3천톤프레스를 만들어내고 비날론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대상설비를 생산한 그 기백, 그 혁명정신으로 1980년대에는 1만톤프레스를 생산한 룡성은 오늘도 혁신의 불꽃을 날리고있었다.

큰 건물로 줄지은 대형가공직장에 들어서니 집채같은 공작기계들이 들어앉았고 천정기중기가 대형소재를 연방 물어나른다. 그러면 그처럼 큰 공작기계가 돌아가면서 팔뚝같은 바이트로 소재를 깎는데 모든 작업이 몇개의 단추로 조종되고있었다.

비약으로 달음쳐온 우리 나라 자립적기계공업의 위용을 여기서도 볼수 있었다.

동해기슭의 굴지의 무역항인 흥남항에 우리가 들어선것은 다음날 아침이였다.

해빛을 받아 그 웅대한 자태를 드러낸 ㄷ형부두에 이르니 고속도대형항만기중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중기들과 대형창고들 그리고 잘 포장된 야적장들에 꽉 들어찬 수출품들과 그것을 나르느라 분주히 오가는 수송기재들로 하여 항은 아침부터 활기를 띠고있었다.



마전유원지의 휴양각들



흥남항에서의 상선작업

해방전에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각종 재부를 략탈해가기 위해 일제침략자들의 배들만이 드나들던 이 부두가 오늘은 이렇듯 람홍색공화국기를 새긴 우리 나라 대형짐배들과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의 크고작은 배들이 나드는 국제무역항으로 전변된것이다.

1호부두에 이르니 우리 나라 대형짐배 《순천》호가 수출품을 싣고 떠난 자리에 《강동》호가 들어서고 3호부두쪽으로는 동남아세아와 북구라파의 어느 항구에서 왔다는 대형무역선이 붕붕 배고동 울리며 서서히 입항하고있었다.

항장은 우리에게 1960년에 비하여 항의 화물통과능력이 거의 20배나 늘었다고 하면서 오늘 흥남항은 해마다 수백만톤의 무역화물을 취급할수 있는 현대화된 항으로 되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참으로 흥남공업지구는 튼튼히 다져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상징하는 하나의 축도였다.

본사기자 조광열

〔동포소식〕

이역어머니들의 마음

우리에게는 만나본적은 없지만 생각할수록 가슴을 울려주며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다.

그것은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땅에서 아들딸들을 키워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지난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나날에 우리는 재중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만났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는 인간상들을 보았다.

《우리 어머닌 나를 금이야 옥이야 키웠어요. 나에게 조선 말과 글을 가르쳐주셨고 조선노래를 배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닌 나를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엄했어요.

혹시 내가 집에 들어와 저도모르는 사이에 조선말을 하지 않을 때엔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맞은적이 한두번이 아닌걸요.

그럴 때면 난 어머닐 막 원망하기도 했지요.

집식구들끼리 있을 때 한마디 잘못한걸 가지고 그리도 성내실가 하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어릴적부터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를 생각할수 없을거예요. 지금 이역땅에서 이 딸을 그려보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가다듬어집니다.》

축전무대에서 독창, 독창과 3중창, 설화와 노래 종목에 출연하였던 장복자는 이처럼 자기 어머니 리정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룡정에서 온 안신숙도 어머니 정형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신숙아, 내가 너를 고이 기르면서 바라는건 언제나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라는것이다.》

《어머니, 잊지 않아요.》

신숙은 어릴적부터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에 이런 대답을 자신있게 하군했었다.

그런데 점차 크면서 신숙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적도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바로잡아주었다.

신숙은 이처럼 가슴에 어머니의 끊임없는 가르침을 새기며 성장하였다.

머지 않아 40대 나이에 들어서게 된다는 안신숙은 눈앞에 어머니를 그리는듯 련련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하였다.

《나는 해외공민학습조에서 어머니를 만나군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나에 대한 가르침에선 변함이 없어요.

어머니는 학습조에서 누구보다 앞장에 서며 늘 나의 생활의 거울이 되여주신답니다.》

어머니들에 대한 이 소박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안겨주었다.

이역땅에서 살아가며 어머니들이 안고있는 근심걱정이 어찌 한두가지랴.

하지만 그들은 아들딸의 가슴속에 애국애족의 참된 넋을 심어주고 키워주는것을 순간도 잊지 않고있는 조선의 어머니들이다.

자식들이 자라는곳이 비록 이역땅이여도 근본을 알고 잊지 않도록 하려는 어머니들의 그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는것이다.

이역의 그 훌륭한 어머니들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며 그들속에 간직된 사연많은 이야기인들 또 얼마이랴!

해외에서 1세, 2세들이 고국을 사랑하는 넋은 바로 이역의 어머니들의 이런 남모르는 노력에 의해 후세에 굳건히 이어져가고 있는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이역동포들의 자랑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들딸들을 애국의 대오에 떳떳이 내세우기 위하여 남모르는 수고를 기울이는 어머니들을 먼저 생각하군한다.

미국 일리노이주 60630 시카고시 북키이스톤 4744 리주곤 앞

존경하는 형님에게

형님, 그동안 형님과 형수님을 비롯한 가내일동이 모두 건강히 잘 있는지요?

참 세월은 빠르기도 합니다.

생사여부도 모르던 형님이 뜻밖에도 40여년만에 편지를 보내오고 조국방문단성원으로 이곳 홍원땅을 찾아 이 동생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한해반이 지났군요.

형님과 그리고 한번도 뵙지 못한 형수님의 필적이 담긴 편지도 반갑게 받았습니다.

형님이 고향에 오시였을 때는 11월초순, 락엽이 진 마가을이였지만 지금 여기는 아직 록음이 우거지고 동해바다가의 아름다운 풍치로 이채를 띤 풍만한 가을철입니다. 풍어기날리며 고기배들이 련이어 들어오고 들판에 황금나락 설레이는 지금의 고향땅모습도 형님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이 다녀가신후 우리 집안은 다 잘 있습니다.

수산사업소 어로공으로 일하는 맏이 남길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신포수산단과대학 통신생으로 입학하여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피복공장에 다니는 맏딸 미순이의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첫 경사였는데 잔치날 형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한것이 정말 서운하였습니다. 좋은 혼처가 나섰기에 제 오빠보다 먼저 미순이를 보냈습니다. 사위 이름은 김형철이고 나이는 스물일곱인데 조선인민군에 복무하고 제대되면서 학교를 추천받아 지금 홍원농업전문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인물잘나고 건강하고 듬직한 사위를 보았다고 동네에서 모두 부러워들합니다.

예로부터 《가시어머니의 사위》라고 미순이 어머니는 사위가 어쩌다 한번 오면 닭을 잡는다, 찰떡을 친다며 부산을 피우군합니다.

형님의 기억에도 삭막하겠지만 형님과 헤여질 때 대여섯살밖에 안되였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오래지 않아 외손을 보게 되고 할아버지란 소리를 듣게 되였구만요.

둘째 남진이는 몇달전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는데 신입병사의 름름한 모습과 함께 홍겨운 병사생활소식도 자주 전해옵니다.

막내딸 미화도 곧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저역시 먼바다어장에 갔다온 배들을 수리하느라 요즘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이 근심걱정없이 잘 지내고있으니 안심하십시오.

형님, 그때 조국에서 기념으로 한줌씩 가져가신 당콩과 두부콩 종자를 정원에 심어서 가끔 당콩밥도 잡숫고 콩나물도 키우며 시카고의 이웃 동포들에게도 나누어주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당콩줄이 엉켜 주렁진 정원을 배경으로 찍어보낸 가족사진을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고향땅의 해빛과 흙, 물, 조국의 후더운 자양분으로 자란 당콩과 두부콩이 수륙만리 이국땅의 동포들에게 적으나마 오매에도 그리운 고국의 정기와 향취를 부어주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형수님은 편지에서 그 당콩종자를 남반부의 친척들에게도 보내겠다고 쓰고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제일 먼저 상봉하고 함께 모여살자고 절절히 피력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눈에 선히 보는듯합니다. 형님이 방문단으로 오시여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묘소를 찾으시고 장시간 오열을 터뜨리며 몸부림치던 그때를 말입니다.

형님, 생각해보십시오. 대륙과 대양을 건너 이국에 사는 동포들도 서로 오가며 서신거래를 하고있는데 어찌하여 한피줄, 한지맥으로 잇닿은 강토에서 북과 남의 형제들이 생리별을 당한채 반세기가까이 갈라져 살아야 하고 북의 당콩종자가 미국땅을 거쳐 남으로 가야 한단말입니까? 정말 우리 민족처럼 분렬의 비극을 겪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기에 오늘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모두가 우리 조국의 분렬을 절규하면서 조선이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기원하고있습니다.

형님, 머나먼 이국땅에 계시는 형수님과 조카들 모두가 적은 힘이나마 조국통일의 성업에 바쳐주시기를 동생은 믿습니다.

통일의 대문 활짝 열려 우리 서로 얼싸안으며 회포를 나눌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형님과 형수님, 조카들 모두가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경남도 홍원군 홍원읍 207반

리 주 연

맛을 조절하는 방법 몇가지

혀로 느끼는 음식물의 맛은 짠맛, 단맛, 신맛 등 5가지의 기본맛이 있다.

짠맛은 신맛이 섞일 때 약하게 느껴진다.

생나물이 너무 짜게 된데는 식초를 더 넣어야 짠맛이 약해진다.

신맛은 단맛이 셀 때 약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무우생나물, 가두배추생나물, 초고추장 같은데 식초를 지나치게 쳐서 너무 시여졌을 때는 당분을 더 쳐서 신맛을 조절할수 있다.

단맛은 짠맛이 약간 섞일 때 세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팥이나 당콩을 삶아 떡고물을 만들거나 빵소를 만들 때 당분만 넣지 말고 거기에 소금을 약간 섞어야 단맛이 더 잘 돋구어진다.

감칠맛은 신맛이 나는 음식에 섞을 때에는 약하게 느껴진다.

식초를 치는 생나물에 감칠맛이 나는 맛내기를 같이 쓰면 호상 맛이 비기기때문에 맛내기의 효과가 없어진다.

고소한 맛은 짠맛이 섞일 때 더 세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닭은 참깨나 들깨에 소금을 조금 넣고 찧어서 음식물에 치면 고소한 맛이 더 난다.

실학의 선구자 리수광

리수광(자는 윤경, 호는 지봉)은 1563년 병조판서를 지낸 리희검의 아들로서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새것에 대한 탐구심이 높아 이름난 문인들로부터 《신동》으로 불리웠다.

20살때에 벼슬길에 오른 그는 력사를 편찬하는 기관인 춘추관의 사관, 리조 좌랑의 벼슬을 지냈다.

량반내부에서 벌어진 정권쟁탈은 16세기 하반기에 이르러 동서분당(동인과 서인으로 불리우는 두개 당파 출현)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였다. 하여 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체계는 혼란에 빠지고 군사력은 약화되여갔다. 안으로는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고 밖으로는 외적들의 침입이 빈번하였다.

리수광이 29살되던 1592년 우리 나라는 왜적의 불의의 침략을 받게 되였다.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으로 우리 인민들이 대전란을 겪던 이 시기에 그는 경상방어사 조경의 종사관으로 있었고 이어 어사로서 함경도의 의병투쟁을 도왔으며 그후에는 류성룡의 종사관으로 있었다. 그는 전쟁 7년간을 전장에서 보내면서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외적들의 치떨리는 만행을 직접 목격하였다. 하기에 그는 후날 자기의 저서에서 전쟁승리의 요인은 인민들의 애국심과 그들의 의병투쟁에 있었다고 정당하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리수광은 정의를 위하여 지조를 굽히지 않고 영달을 위하여 량심을 팔지 않은 고결하고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였다.

량반내부에서의 당쟁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임진조국전쟁승리에 기여한 류성룡을 령의정의 직위에서 쫓아내고 그의 지지를 받아온 리순신장군을 모해하려는 북인, 남인 당파의 리적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리순신, 조헌, 송상현 등을 높이 찬양하였다.

전후 국왕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여 북인계통 인물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도 그는 당쟁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는 광해군 집권초기 《도승지》, 《례조참판》, 《대사헌》 등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당쟁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것을 보며 참기 어려워 1613년부터는 스스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고말았다. 그후 순천부사로 지낸 일이 있었으나 그마저 그만두고 시골에 은퇴하여 저작사업에만 힘썼다.

오랜 벼슬살이과정과 임진조국전쟁참가 그리고 세차례의 외국려행은 그의 실학사상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리수광은 실사구시(현실적으로 쓸모있는 리치를 탐구하는것)적인 학풍을 주장하였으며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지봉류설》, 《지봉집》은 그의 실사구시적인 관점과 립장이 반영되여있는 대표작들이다.

그는 당시 편협한 유교성리학자들이 공리공담을 일삼으면서 옛날의 경전이나 읽고 시나 읊으면서 허송세월하고있는데 대하여 비판하면서 《학문이란 목적을 똑똑히 세우고 그 방향을 옳게 잡아야 쓸모있는 학문으로 될수 있으며 그래야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건져내는 학문으로 될수 있다.》라고 하였다.

《지봉류설》은 모두 20권으로 되여있는데 여기에는 348명에 달하는 국내외 각 부문 학자들의 저서와 당시 유교성리학자들의 관심밖에 있던 천문, 력학, 지리, 력사, 제도, 풍속, 종교, 문학, 예술 등에 대한 연구사업결과를 서술하였다. 그는 특히 조국의 력사, 지리, 언어, 제도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비교적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 립장에서 소개하였다.

《지봉집》은 34권으로 구성되였는데 여기에는 저자의 철학적 및 사회정치적 견해와 개혁사상, 시들과 산문들이 실려있다.

그는 이 저서들에서 백성이란 어리석다 하여 속일수 없는것이며 천하다 하여 업수이 여길수 없다고 하면서 백성은 곧 인군의 하늘이라고 하였다.

자기 저서의 여러곳에서 그는 고



루한 량반학자들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 제도변경을 주장하였는데 이런 사상을 제기한것은 이 저서가 처음이다.

책에서 저자는 국왕이 사는 궁궐은 《편혈지》(인민들을 학살하는곳)라고 하였고 최고위급량반벼슬아치들의 자식들이 공부하던 독서당을 《독사당》(독사뱀이 도사리고있는곳)이라고 하였다.

그는 근세에 이르러 과거급제에서 인재를 뽑는데는 그의 재예로서 하지 않고 뢰물과 협잡으로 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인재본위로 관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류행하던 시구를 인용하였다.

젊어서 늙라서 힘써 배울건가
문장으로 출세하기 아예 틀린것을
조정에 가득찬 청색 자색 례복 차린 《귀한자》들은
이들은 글 읽는자 아니거늘

리수광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정치적인 《개혁》안도 제기하였다. 그는 인민들에 대한 폭력정치로써는 봉건통치를 유지할수 없다는 립장을 표명하였으며 노비들의 사회적처지에 대하여 일정한 《동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토지문제와 군사력강화 그리고 수공업과 산업, 화폐류통을 발전시킬데 대한 진보적인 문제도 제기하였다. 전란이 끝난후 무능한 집권자들의 국방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양병의 기본은 양민에 있다고 하였으며 토지의 균등한 사유가 경제의 근본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라의 부강발전을 념원한 리수광의 제안과 견해는 그의 애국주의사상과 립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는 당시의 사대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주적립장에서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에 대하여 높은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노래하였다.

리수광은 《지봉집》에서 선행한 서경덕, 리이 등의 철학사상을 계승하여 일련의 진보적사상을 내놓았다. 그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부단한 변화과정에 처해있으며 이 과정은 일정한 법칙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사상을 반영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중세철학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실학의 선구자이며 애국자인 리수광은 당대의 이름있는 문장가이며 문예평론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전문적인 작가나 시인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의 글과 시는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여러 나라들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한번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교지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리수광의 시를 내보이면서 《당신은 당신네 나라의 리지봉이란분을 아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신들은 리수광의 시문을 구하고저 애썼으며 그것을 자기 나라에 전파하였다.

리수광은 명문이란 그 분량이 많고 적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뜻을 다하는데 있을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글에서 남의것을 모방하거나 숭상하는것을 질색하였다.

그는 《요새 사람들은 어려운 글을 써서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탄하였다.

《지봉류설》에는 3천수백개의 짤막한 문장으로써 다방면적인 내용을 간명하게 서술하고있는데 이것은 리수광의 문장의 특징을 말해준다.

리수광의 작품이 다 그러하지만 시 《성쌓는 노래》와 단편소설 《황생의 망상》은 실학자로서의 그의 작가적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작품들이다.

시 《성쌓는 노래》는 당시 부역에 끌려나와 당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민본사상의 견지에서 새롭고 투철하게 제기하고 형상하였다.

단편소설 《황생의 망상》은 유교경전의 《천지개벽》에 심취된 양근이라는 산골마을에 사는 선비 황생의 풍자적인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황생은 유교경전을 즐겨읽었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어느날 자기 집에서 경서를 읽고있는데 번개와 우뢰가 일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얼마후에는 뒤산에서 사태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황하여 방안에서 뛰쳐나온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서에서 외우던 《천지개벽》으로 생각하고 온갖 시름을 다 잊어버리며 희열과 행복감에 심취된다. 날이 개인후 바라보니 자기가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산천초목은 변함이 없으나 자기 집은 흙사태에 파묻혀 형체조차 없어졌다. 황생은 그때에야 정신을 차린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사람들이 자지러지게 웃는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져 《학문》만을 외우는 봉건유교학자의 풍자적성격을 묘사하면서 봉건유교교리에 대한 독경식학풍의 무익성을 비판하고 현실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였다.

단편소설 《황생의 망상》은 17세기이전 현실과 유리되여 유교교리를 독경식으로 외우는 유학자를 직접 풍자적주인공으로 선정하고 비판한 첫 작품이다.

리수광은 1628년 12월 66살을 일기로 생애를 끝마치였다.

리수광은 후세 실학사상이 나아갈 터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실학의 선구자라고 하는것이다.

실학작품인 《량반전》, 《허생전》은 그후에 나왔다.

리수광은 당시의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봉건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생각할수 없었다. 그의 작품들에는 봉건유교사상과 사대주의사상을 소개선전하고 미신적인 음양오행설을 신비화하고있으며 지배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등 제한성과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장 광 혁

력사는 고발한다

과거 일제의 가장 큰 범죄의 하나는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것이다.

아래의 사진들은 살인마 일제를 고발하고있다.



온 강산이 흰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날 털모자와 털외투를 입은 병졸들을 한줄로 세워놓은 장교놈이 웃옷을 홀딱 벗기고 결박한 조선청년들을 꿇어앉히고 그들의 목을 자르는 시범동작을 하고있다. (첫번째 사진)

그들은 이렇게 병졸들에게 살인방법을 배워주고 야수성을 키워주었다. 이렇게 길들여진 살인마들이였기에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고 닥치는대로 살륙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죽이는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여기였다. 일제야수들은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무고한 조선의 청장년들과 지어 녀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군도와 작두로 목을 잘라죽이고 총창으로 찔러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사지에 못을 박아죽이고 각을 떠서 죽이면서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두번째 사진)

일제의 학살만행광경을 목격한 어느 한 외국선교사들까지 일제의 행동은 《법이 없는 야만인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제였기에 그들은 자기 손으로 죽인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처참한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히히닥거린다. (세번째 사진)



100여만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한 일제에 대한 원한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오늘 일본정부당국자들은 과거에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대죄에 대하여 사죄하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있으며 지어는 살인마들을 찬양하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다. 얼마전 일본법무상이였던 나가노는 지난날 일본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본군은 식민지해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떠벌였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침략적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살인만행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동포들이 추억하는 렬사의 딸을 찾아서

《아, 리현상선배님의 혈육이 이렇게 살아있었단말인고?!》

이것은 몇해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한 재일동포가 사업상으로 만난 녀성일군이 누구의 자손인가를 알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 말이였다.

동포가 추억하는 리현상선배, 그는 이미 우리 인민들속에 잘 알려져있는 지리산인민유격대 대장이였다.

우리는 머리에 흰서리내린 이역의 로세대와 사연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날의 주인공인 리상진을 찾았다.

렬사의 모습

어느 한 중앙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는 렬사의 딸 리상진의 집은 창광거리에 있었다. 우리를 반겨맞는 그는 50대나이에 단아하고 세련된 기품이 엿보이는 녀성이였다.

《1905년 9월 27일생인 아버지는 래년이면 꼭 90살이 됩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떼며 그는 먼저 아버지와 이역동포사이에 흘러간 세월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들려주었다.

1929년 가을, 광주학생시위때 그 앞장에 섰던 청년들중에 바로 리상진의 아버지 리현상과 강군, 오늘의 강동포가 함께 있었다. 그때 리현상은 4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했었는데 강동포는 그와 끝까지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이역땅으로 갔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투옥되였던 리현상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항일혁명대오에 서서 싸우던 박달, 권영벽을 알게 되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항쟁방침을 전해들었다.

나라찾는 옳은 길을 갈망하여마지 않던 그는 그때부터 광복의 한길로 겨레를 묶어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유일한 령수로 우러렀다.

해방후 그처럼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령도자를 처음 만나뵈온 그는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조국과 민족을 우위에 놓으시는 그이의 투철한 애국애족사상에 무한히 감동되고 매혹되여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불꽃이 되여 타오르리라 필생의 결의를 다졌다.

미제가 강점한 남녘땅에서 그의 투쟁의 걸음걸음은 1940년대말부터 지리산의 험준한 산발에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지리산인민유격대 대장으로서 그가 이끄는 대오는 유격전의 총소리도 높이 조국해방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소백－지리전구 〈공비〉 〈토벌〉전에서 교전회수 실로 10,717회》,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리산에 대한 공군비행기 출격회수 68회》.

남조선출판물에 실렸던 이 자료는 지리산인민유격대의 투쟁의 일단을 생동하게 반증해주고있다.

무비의 용감성을 떨치며 성스러운 싸움의 길을 이어 새로운 전구로 향하던 리현상은 1953년 9월, 지리산의 빗점골에서 불의에 맞다든 적《토벌》대와의 힘겨운 전투를 벌리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조국통일성업의 길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리현상은 오늘 수도 평양의 교외에 있는 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 조국과 더불어 영생의 삶으로 빛나고있다.

수도 평양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에는 그의 사진이 전시되여있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조각군상 《적후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편에도 불사신같은 그의 모습이 비껴있다.

생존시 그에게는 이미 국기훈장 제1급, 자유독립훈장 제1급과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되였었고 희생된 후 1968년에는 렬사증 1번이, 1990년 8월에는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였다.

《아버지와 헤여져 그후의 소식들을 풍문으로만 들었다는 강동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버지의 한생이 조국과 겨레 앞에 이렇듯 값높이 전해지는줄 몰랐다며 눈가의 이슬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후손들의 길

지리산의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전률하며 그의 목에 수만금의 현상금을 걸었던 원쑤들은 리현상의 최후당시 그 일가족까지 학살하는데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빨갱이씨》를 낳았다고 원쑤들은 그의 어머니를 고향밖으로 내쫓아 류랑걸식하게 만들었다.

원쑤들은 공포의 대상이였던 리현상의 존재와 그 이름, 그 일가를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은 오산하였다.

시기와 경로는 달라도 원쑤들의 마수에서 벗어난 렬사의 안해 최문기녀성과 네남매, 렬사의 셋째형의 안해 그리고 셋째형의 자녀들중 두 아들과 딸은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다.

이들의 성장의 갈피갈피에 깃든 이야기들중 리상진자신의 대학시절에 대한 추억은 절절했다.

그때 상진은 자주 앓았었다. 남조선에서 그의 일가에는 항시 현상금이 붙어있었는데 한달에도 일곱번이상 집아닌 허청간, 창고에 몸을 피하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던것이 그만 상진에게 병으로 되고말았던것이다.

그러던 1961년 4월 어느날, 상진의 집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찾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진이 병들게 된 사연을 다 들으시고 상진동무의 병을 꼭 고치자고 하시며 그에게 언제나 자신의 계급적처지를 잊지 말고 몸도 마음도 강철로 벼려야 한다고, 꼭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였다.

상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아직은 렬사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국앞에 그 후손의 넋을 불러일으키시며 끝까지 빛내여주시려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불사약이 되고 생의 억센 날개로 되였던것이다.

그이의 끝없는 보살피심속에서 상진은 대학졸업후 우리 나라의 첫 녀성1등서기관으로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니고 활약하였으며 어엿한 녀성간부로 성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정치일군으로, 경공업부문의 당일군으로 사업하였고 지난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70돐생일상을 받은 맏딸 리무영, 1946년도에 제일먼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품을 찾아와 마음껏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인민대학습당에서 국제도서교환처장사업을 맡아하며 인민사서의 명예칭호도 지닌 아들 리극, 나라의 중요부문에서 사업하는 둘째딸 리문영.

지난해 1월, 렬사가 남긴 이들 네남매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렬사의 막내딸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2년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100돐생일상까지 받았던 큰어머니와 나라의 믿음직한 일군들로서 한몫하고있는 사촌형제들, 70살되는 해인 1972년에 세상을 떠난후 애국렬사릉에 아버지와 나란히 합장되여있는 어머니…

그는 대외부문에서 사업하는 남편과 아들딸들, 외손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우리 네남매의 아들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을 다 꼽으면 42명이나 되는데 아버지의 대가 어느덧 증손에까지 이르렀지요. 통일성업의 길에서 한목숨바친 사람들을 조국과 력사 앞에 영생의 모습으로 빛내주시고 그 자손모두에게 생의 은인이 되시고 운명의 보호자가 되여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서말입니다.》

우리는 리상진의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해외동포들속에 지리산의 영웅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어찌 한둘이랴! 그들이 렬사의 후손들의 행복한 성장을 안다면 강동포처럼 그 얼마나 기뻐하랴!

본사기자 려순옥



리현상의 딸 리상진

애국의 넋을 따라배우려고







리현상



아버지의 묘를 찾은 자녀들

본사기자 리히철

조선특산

단 너 삼



단너삼은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약재로 쓰는 뿌리는 곧고 굵은 노끈모양이며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단너삼뿌리에는 사람의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로이신, 티로신, 드를린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들과 포도당, 서당 등 여러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다.

단너삼뿌리는 심장기능을 높여주고 피를 잘 돌게 하므로 고혈압, 콩팥염, 당뇨병에 쓰이며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으며 식은땀이 절로 나는 사람들에게 보약으로 쓰인다.

단너삼을 보약으로 쓸때에는 닭에 넣어 곰을 만들어 먹는것이 좋다.

단너삼은 우리 나라 북부의 높은 지대에서 많이 자라며 중부지대에서도 자란다.

약초밭에서 가꾼 단너삼은 3년 자란것을, 산에서 절로 자란 단너삼은 5~6년 자란것을 캔다.

우리 나라에서는 단너삼자원을 많이 찾아내여 보호증식하고있을뿐아니라 단너삼을 전문으로 심는 약초농장을 조직하고 군중적으로 가꾸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민족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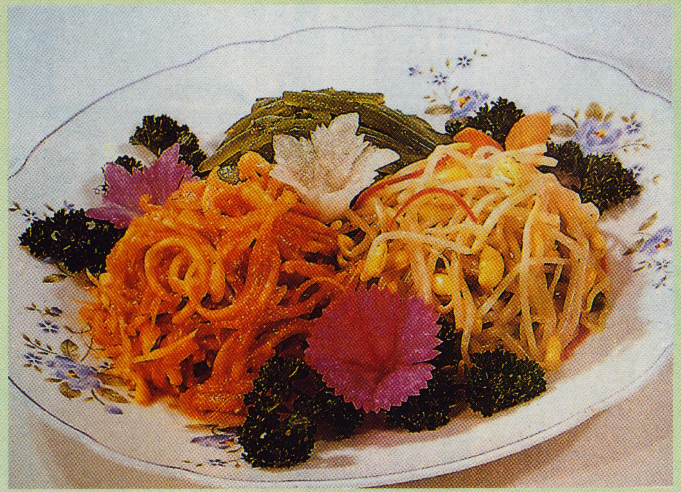
삼 색 나 물

생도라지	100g
녹두나물	100g
미나리	100g
실고추	0.5g
맛내기	1g
소금	3g
마늘	5g
기름	10g
참깨	1g
간장	5g
파	10g

①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찢어 쓴맛을 우려내여 여러가지 양념에 무쳐낸다.

② 녹두나물은 대가리와 뿌리를 자르고 미나리는 줄기만 5cm길이로 썬 다음 따로따로 끓는 소금물에 데쳐 양념에 무친다.

③ 접시에 준비한 나물들을 색을 맞추어담고 실고추와 참깨를 뿌려 낸다.



특징 : 색조화를 이루어 입맛을 돋구며 보기에도 좋다. 여러가지 영양소와 비타민, 광물질들이 많이 섞여 몸에도 좋다.

연회, 동석식사에 낼수 있는 고급남새음식이다.

경흥관 김광연

묘향식당
妙香飯店


책임자 남영혜



식당내부의 일부



동포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묘향식당은 개업한지 2년밖에 안되며 운영방식과 봉사사업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식당입니다. 식당책임자인 저역시 오래동안 공장에서 통계일을 해오다나니 이 분야에는 조예가 별로 깊지 못하답니다. 그저 욕망만 앞설뿐이예요.

그런데도 우리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식당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과분한 찬사를 하는군요. 어떤 손님들은 저에게 왜 식당을 널리 자랑하지 않는가고 충고까지 주는게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답니다.

사실 저는 이국땅에서 마흔살이 가깝도록 살면서 조국에 아무런 보탬도 준것이 없습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여 조국인민들이 땀흘려 건설해놓은 무수한 창조물들을 본 이후로는 나도 늦게나마 겨레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고싶은 마음속충동을 누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하던끝에 조선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하나 차려놓을 결심을 하게 되였던 거예요.

예로부터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식성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겠어요. 더우기 이역에서 살면서 조국의 물과 공기조차 그리워하는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민족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식당이름도 우리 동포들의 미감에 맞게 《묘향식당》이라고 달았답니다.

산세 기묘하고 계곡에 꽃향기 차넘치는 조국의 명산, 묘향산의 이름을 붙이니 식당의 인기가 대번에 올라가는것이 아니겠어요. 손님들 모두가 민족적향취 진하게 풍기는 식당이름만 들어도 저절로 구미가 당긴다고 무척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 식당에는 하루 평균 100명정도의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중 대다수가 조선동포들이랍니다.

연길시와 연변지구의 동포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일본과 구라파, 미주 지역에서 려행온 동포들도 우리 식당에 들리군합니다.

조국을 여러차례 다녀온 동포들의 말이 《아리랑》의 은은한 선률이 울려퍼지는 식당홀을 지나 향긋한 음식내를 맡으며 2층층계를 오를 때면 마치 절묘한 묘향산의 계곡을 톺는듯한 느낌이 든다나요.

우리 식당에서는 밥, 국수, 물만두, 단고기국, 김치, 각종 산채 등 수십가지의 조선음식들과 함께 간혹 찾아오군하는 중국인손님들을 위해서 몇가지 중국음식도 낸답니다. 조선음식을 맛본 중국인 손님들도 그 맛이 유별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식사방, 소연회방들도 꾸려놓았고 2층에는 로인들과 어린이들이 편히 앉아서 식사할수 있게 산뜻한 돗자리를 깐 방들도 마련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식사를 기다리는동안 방에 차려놓은 서가에서 조국의 력사와 지리, 풍속 등과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화첩, 잡지, 도서들도 꺼내볼수 있답니다.

나이지숙한 동포손님들은 조선음식이 푸짐히 차려진 식탁을 마주하고보니 조국에 온것같은 기분이 난다고 하면서 몹시도 감회깊어합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동포들이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친숙해지는지 모른답니다. 아마도 이국에서 맛보는 조선음식이 류달리도 그들의 감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모양이예요.

헤여질 때면 언제나 조국을 잊지 말고 살자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다같이 힘쓰자고 격려의 말을 나누군한답니다.

우리 식당에는 남조선에서 온 동포들도 가끔 들리군하는데 그들도 온 겨레가 단합하고 화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며 동포애의 분위기에 휩쓸리군한답니다.

동포들의 미덥고 친근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는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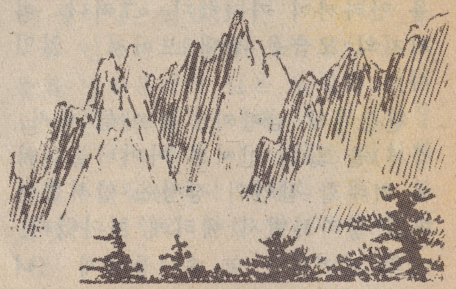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식당이 동포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고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게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나요.

식당에 찾아오는 동포손님들은 영업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우리를 고무해주며 식당운영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의견들도 자주 주군한답니다. 참으로 우리 동포들은 의리심깊고 인정많은 사람들이예요.

앞으로 동포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식당을 더 잘 꾸리고 운영을 잘해볼 결심을 다지고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동포손님들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할것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원로 74호
묘향식당 남영혜



귀향의 길은 열려져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는 분단민족의 비극속에 신념과 의지로 이어진 빛나는 생을 기록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수십명을 이루고있다.

그들중에는 김인서, 함세환 로인들도 있다.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지리산과 속리산에서 빨찌산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전쟁포로이며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30여년간 옥고를 치른 비전향장기수들이다.

혈육을 기다리는 마음

김인서는 1926년 11월 평안남도 덕천군에서 태여났다.

식민지조선의 가난한 가정속에서도 억세게 자라나 해방을 맞은 그는 민주조선청년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맹산군민청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중 1950년 6월 25일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그해 8월에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전선으로 떠났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다심한 심정에 휩싸여 100통의 엽서를 사서 그의 배낭에 넣어주면서 고향을 잊지 말고 이르는곳마다에서 자주 편지를 하라고 타이르듯 말했다. 인서는 4살난 딸애와 태여난지 다섯달밖에 안되는 둘째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전쟁을 이기고 꼭 돌아올테니 걱정들 말라고 밝게 웃으며 떠나는 렬차에 몸을 실었다.

그후 그는 인차 서울에 이르러 한통의 편지로 안부를 전하고는 40여년간 종무소식이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끝나고 전선으로 함께 떠나갔던 고향마을 친지들도 하나둘 돌아오고있을 때 그의 딸 화심이와 정심이는 매일같이 손목잡고 역전으로 나가 아버지를 안타까이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전쟁에서 남편과 두 아들(학서, 길서)을 잃은 인서의 어머니는 이제 기대할 집안의 장정은 인서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다. 그의 어머니는 늘 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여서 쉽게 쓰러지지 않을텐데…》라고 하며 눈을 감는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혈육들이 그렇게도 안타까이 기다리다 못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단정하였던 김인서는 무려 33년 7개월의 옥중생활속에 비전향장기수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후퇴시기 그는 미군의 《인천상륙》으로 후퇴의 길이 막히자 지리산유격대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1951년 11월 체포되였다. 그때로부터 광주포로수용소에서 대전, 대구 교도소로, 대구갱생보호소, 청주보안감호소에로 이송되여가며 근 34년이라는 귀중한 생을 모진 옥살이로 흘러보냈다.

김인서의 혈육들과 친지들이 그의 소식을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 그가 고향을 작별한지 40여년 세월이 흐른뒤였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에는 그의 맏딸 김화심(평양외국어대학 강좌장), 둘째딸 김정심(평양시 강동군 문흥유치원 원장)이 평양에서 살고있고 그의 녀동생들인 봉선이와 봉숙이가 년로한 몸이지만 건강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다.

지난해 추석때 두 딸은 고모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화심이가 두분의 묘소에 잔을 드리며 아버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소식과 아직은 여기에 오시지 못하여 대신 제가 잔을 드린다고 말씀올리자 정심이가 울음을 터쳐 모두 따라울었다. 인서의 동생 봉숙은 평안남도 북창역에서 작별할 때 그렇게도 밝게 웃으며 떠나간 인서오빠가 살아있으면서도 한생토록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참 기막힌 일이라면서 한을 풀지 못하고있다. 분단비극은 한 혈육의 가슴속에 너무나도 절통한 아픔을 가져다주는것이 아닌가!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경상남도 장성의 어느 외진 산골 채석장에서 힘겨운 로동과 병마에 시달리고있는 고령의 김인서로인이 그리운 딸들과 상봉조차 할수 없는 사실이다.

김인서의 가족들



김인서는 출판물을 통하여 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간으로 태여났으니 끝까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나갈것이다.》라고 썼다.

이것은 그가 한생토록 가슴속에 간직하여온 신념의 목소리였다.

그의 딸 김화심은 아버지에게 보낸 회답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아버님은 전향서를 쓰지 않았던 까닭이 젊은 시절의 신념을 굽힐수 없었고 우리 자식들, 손자들, 안해, 형제들, 부모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고싶은것이였다고 하셨다지요. 정말 장하십니다.

아버님이 미래를 락관하시는것처럼 우리의 상봉은 반드시 이룩될것입니다.

부디 그날까지 신심을 잃지 마시고 몸건강에 주의하시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고향으로

《한날 짐승조차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44년이라는 세월을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수 없었고 단 한순간도 잊어본적이 없는 그리운 부모형제, 일가친척이건만 생사조차 알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듯합니다.…

더 늦기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뜨겁게 만나고싶습니다.

한평생을 고뇌와 시련 속에서 살아온 한 로인의 간절한 념원을 모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가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다시한번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살고있는 함세환로인이 기자들에게 부탁한 말이다.

함세환 역시 무려 34년의 옥중생활을 강요당한 비전향장기수이다.

함세환은 1931년 황해남도 옹진군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되였으나 그가 살고있던 옹진군은 38선이남으로서 미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함세환은 당시 의로운 투쟁으로 활약하던 형의 영향으로 반미구국항쟁에 떨쳐나섰다.

전쟁이 일어난 해의 7월, 그는 19살의 젊은 나이에 의용군으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다.

그후 속리산에서 빨찌산투쟁에 합류하였다가 1953년 6월 20일, 4발의 총알을 맞고 체포되였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구형무소에 갇혔다가 1973년 6월 25일 출소하였지만 1975년 7월에는 비전향을 리유로 《사회안전법》에 걸려 청주보안감호소에 다시 갇히게 되였다.

그리하여 1989년 8월 7일까지 34년간의 옥중생활을 하게 되였던것이다.

현재 공화국북반부에는 누이 함숙녀가 년로하지만 고향에서 정정한 몸으로 여생을 보내고있다.

지난 4월, 누이 함숙녀는 그리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를 대신하여 네 조카가 편지를 쓰니 그리 알아다오.

누이와 일가친척들은 네가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째서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느냐.

먼저번 편지에도 썼지만 네가 그리도 잊지 못해 오고싶어하는 고향마을 옹진군 함촌 당골은 우리가 자라던 그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이 되였단다.

우리 고장이 이남지역에 속해있을 때에는 이곳에 초가 3간을 겨우 마련해놓고 박내경이네 메소를 부리면서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허우대가 큰 네가 늘 배고파하던 일이 지금도 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푸짐한 식탁에 마주앉을 때마다 네 생각이 나서 눈물부터 앞선단다.

형님의 일을 도왔다고 하여 하루가 멀다하게 경찰에 끌려가 매를 또 얼마나 많이 맞았니. 어느날 경찰에 잡혀가 죽도록 매를 맞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와서 날보구 형님한테 그냥 있을것을 괜히 집에 와서 매를 맞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던 일이 어제일같은데 그것이 너를 본 마지막날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니.

그후엔 통 네 소식을 알길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줄로만 알았구나. 그런데 네가 여태 살아있으면서도 혈육들과 갈라져 만나볼수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 열아홉살에 고향을 떠난후 수십년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고 옥살이에서 풀려나온 후에도 돌보아줄 사람 하나 없는 객지에서 환갑을 넘긴 병약한 몸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너를 생각하면 너무도 억이 막혀 가슴이 터지는것 같구나.

네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보고 눈을 감는다면 이 누이는 여한이 없겠다.

내 나이 이제는 여든을 넘어 앞날이 그리 길지 않지만 그리운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으려고 한다.

네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이 누이를 생각해서, 고향사람들을 생각해서 공화국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부탁한다.》

* * *

김인서, 함세환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1907년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과 1949년 8월 12일부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전쟁포로의 대우를 받게 되여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조선정전협정 제3조 51항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이후 60일이내에 북으로 송환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해사이에 공화국적십자회가 그들의 송환문제를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나 남측 적십자사에서는 당국의 사촉밑에 여전히 부당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량심이 그들의 송환문제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고있는 이때 남조선적십자사는 하루빨리 이 사업을 정의와 인도주의립장에서 해결함으로써 그들에게 귀향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친선의 무지개

정이 두터우면 천리밖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마음속에 두게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평양시교외에 있는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을 참관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였다.

허물없이 나눈 이야기

택암마을에는 여느 살림집과 다름없는 한채의 보통농가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주은래동지와 함께 1958년 2월 19일에 이 집을 다녀가시였다.

그날 주은래동지는 집주인의 소박한 인사를 반갑게 받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주인은 마치 아들집에 온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가정형편에 대하여 속속들이 말씀을 드렸다.

평범한 농장원의 이야기를 다정다감한 표정을 지으며 듣던 그분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장원의 살림에 자못 만족한듯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였다.

주은래동지는 집주인의 작별인사를 받으며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때에 또 오겠노라고 하였다.



축기와 기념품들

택암땅에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무지개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였다.

천만마디 말보다

택암마을의 복판에 독특한 건축미를 가진 아담한 건물이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조중인민의 친선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조중친선실이다.

이 농장의 농장원들은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1950.6~1953.7) 참전 35돐을 맞으며 친선실을 건설하였다.

조중친선실에는 농장을 방문한 중국의 여러 방문단들이 남기고간 축기며 기념품들이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친근한 이웃의 벗들이 친선의 정을 안고 한뜸한뜸 수를 놓은 축기며 섬세하고도 기묘한 솜씨로 만든 공예품들,

진렬장을 꽉 채운 친선의 상징품들은 친근한 이웃형제들이 우리에 대해 품고있는 뜨거운 우의의 정을 집약하여 펼쳐보이고있다.

사람들은 좀처럼 진렬장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한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꽃을 꺾어다 이곳에 장식해놓은들 그들의 마음을 이처럼 끌며 뜨겁게 하겠는가.

꽃은 그 아름다움에 잠시 눈맛을 돋구는것으로 피였다가 시들어버리지만 이웃형제들이 남기고간 기념품들은 천만마디 말보다 더 깊고 큰 친선의 뜻을 담고있어 시들줄 모르는것으로 영원한것이다.

사시장철 푸르러

택암마을에서 가장 경치좋고 언덕진곳에 두그루의 잣나무가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지금부터 10여년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당 및 정부대표단이 이곳 협동농장을 참관하고 기념으로 심은 잣나무이다.

이 마을의 꼬마들은 이 잣나무를 정성을 기울여 가꾸어왔다.

그들은 물을 길어다 잣나무에 주고 받침대도 만들어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잣나무를 심었을가?》

《조중인민의 친선의 정이 이 나무에 담겨있다고 했는데 왜 그럴가?》

그 의문을 품고 잣나무도 자라고 아이들도 컸었다.

그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거나 일깨워준것은 없었지만 택암땅에 펼쳐진 조중친선의 화폭은 그 의문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었다.

금년에 두그루의 잣나무에 열송이의 잣이 달렸다.

마을의 꼬마들은 잣이 익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잣씨앗을 받아 동네에 심겠다는것이다.

새 세대들이 땅에 묻은 씨앗이 움이 터 자라 잎을 펼치면 온 마을은 사시장철 푸르른 숲속에 잠길것이다.

대를 이어 공고발전되는 조중친선의 화폭이런듯.

수필

영생의 언덕우에

지난 초가을 어느날 우리는 평양시의 모란봉기슭에 높이 솟아있는 우의탑을 찾았다. 탑신을 억년주추돌로 떠받든 넓은 탑안으로 들어서니 우리의 눈앞에는 세 벽면을 꽉 채운 벽화가 펼쳐졌다.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아래 중국인민지원군장병들이 조선전쟁(1950.6~1953.7)에서 보여준 국제주의의 산모범이 영웅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진것이다.

그 영웅서사시의 실재한 주인공들의 명단이 벽화앞에 있는 화강석대돌우에 놓여있었다.

《영생불멸》이라고 뚜렷이 박아쓴 명부의 표지를 펼친 우리는 숭엄한 감정속에 영웅렬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나갔다.

자기의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한 황계광영웅, 폭약을 가슴에 안고 뛰여들어 적진지를 까부신 오신화영웅…

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렬사들속에는 구소운이라는 20대의 젊은 영웅전사가 있다.

1952년 10월, 391고지습격전투에서 적진 60메터앞에 매복한 구소운전사의 잔등에는 겁에 질려 쏘아대는 적소이탄의 불덩이가 떨어졌다.

불길은 번져나갔다.

불덩이는 점차 살을 파고 타들었다.

조금만 움직이면 몸에 달린 불을 끌수 있으련만 전투행동의 은밀성을 위해 스물한살의 지원군병사는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최악의 고통속에 생살이 타들어와 의식이 가물거리던 그 순간에 전사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가.

생일날이면 월병을 빚어주던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였을가 아니면 래일에 대한 청춘의 푸른 꿈이였을가.

아니, 자기의 넋을 불태워 린방의 이 땅에 친선과 우의의 고운 꽃을 피운 전사는 보다 크고 성스러운것을 념원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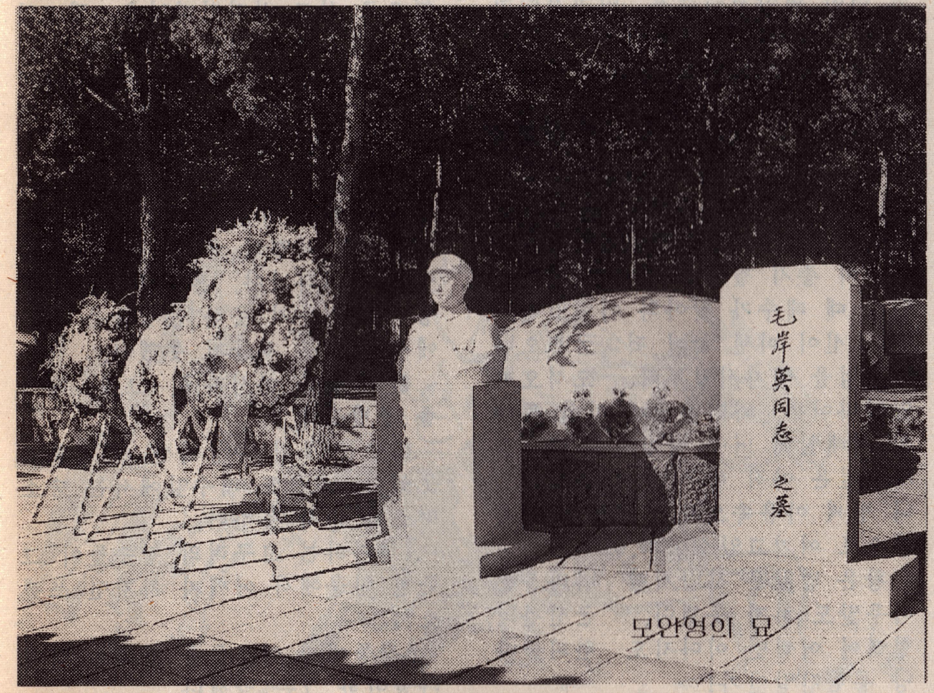
공화국영웅들인 모안영, 양근사, 리상, 라춘생 그리고 라성교, 류수진…

조중친선의 길에서 영생의 꽃으로 핀 영웅렬사들의 그 이름 천이랴 만이랴.

그 영생의 이름들을 새겨가느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마쳐왔다.


구소운


황계광



모안영의 묘

조중친선, 그것은 더운 피로 맺어진 혈연적인것이기에 그처럼 진실하고 귀중한것이라고.

우리의 조중친선의 꽃은 세상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도 않고 때묻지도 않고 더욱 억세고 아름답게 피여날 깊고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도 중국동북광야의 눈바람과 밀림의 긴긴 밤은 이야기하고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중국혁명을 위해 소중한 희망과 꽃다운 청춘을 어떻게 바쳤으며 광막한 땅우에 피의 자욱을 어떻게 새겼는가에 대하여.

세월과 더불어 깊고도 억세게 뿌리내린 조중친선의 고운 꽃은 50년대 전쟁의 불길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여났고 90년대 오늘날에 더더욱 만발해가고있다.

오랜 전통속에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영생의 언덕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있는 영웅렬사들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를 더듬다

신라를 구원한 광개토왕

399년 광개토왕이 평양에서 백제 아신왕의 배신행위를 놓고 생각을 굴리고있을 때 신라가 왜놈들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나물왕의 급보를 받았다.

사실 그때 신라는 생사존망의 기로에 있었다. 신라의 나물왕은 왜인들을 잘 달래여 지금의 곤궁한 처지를 면해볼것인가 아니면 고구려에 청병할것인가를 놓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재상들은 왕에게 제가끔 자기 주장을 끈덕지게 간하였다. 나물왕이 왜인들과 타협해보자는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이찬(2등관직) 대서지는 왜인들은 믿을수 없다고 주장해나섰다. 그는 인질로 고구려에 가있는 실성의 아버지이다.

《신은 대고구려에 청병하는것이 상책일가 하오이다. 고구려는 동족의 나라이며 동방강국이나이다. 우리 계림국의 보전을 동족도 아닌 사특한 왜적에게 의탁하려 함은 제 간을 뽑아 이리떼에게 맡겨두자는것이나 다를바 없는줄로 아나이다. 왜적에게 의탁하면 곧 투항을 의미함이요, 투항은 망국이나이다.》

대서지의 이 말에 군무와 정사를 맡은 이찬 무알이 대서지가 실성을 볼모로 보낸걸 원망하던 나머지 고구려세력을 끌어들여 나라를 풍전등화에 놓이게 하자고 한다면서 반박해나섰다. 그에 무알의 동료들이 지지해나섰다. 장내는 거친 목소리들이 분주히 오갔다.

나물왕은 어느 권고도 받아들일수 없었다. 아—비통코나…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후원으로 나온 나물왕은 계림국의 종말을 한탄하며 몸부림쳤다. 번거롭고 괴로운 생각에 지쳐버린 왕앞에 대서지의 령을 받은 두 신하가 와서 고구려에 청병하러 가겠다고 아뢰였다. 왕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승낙하고 서신을 써주었다. 그리하여 나물왕의 국서를 가진 사신이 평양성에 달려왔던것이다.

광개토왕은 한피줄을 나눈 겨레의 나라인 신라가 왜적의 침입으로 위험에 처한것을 보고 그냥 있을수 없었다. 그는 꿇어엎딘 실성과 두명의 사신을 측은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분연히 결심을 내렸다.

《실성과 사신은 듣거라! 오늘 신라의 형세가 그렇듯 급함은 우리 강토와 겨레에 닥친 위기이기도 하노라. 이제 곧 고구려의 군사를 풀어 신라를 구원하러 갈것이니 그대들의 왕에게 그리 알려라.》

이윽하여 사신들은 실성과 헤여져 급히 신라로 떠나갔다.

한편 광개토왕은 왜적을 치고 신라를 구원해줄 일을 누구에게 맡길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있었다. 헌데 그 중임을 맡길만한 장수를 데리고온 신하들속에서는 종내 고를수 없었다. 대군을 파하였다가 혹 실패하여 나물왕의 간청을 풀어주지 못하면 동방의 강국으로서의 고구려의 체면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이 땅의 한쪽이 왜적에게 짓밟혀 도륙당할게 아닌가.

왕은 저도모르게 머리에 흰서리가 덮인 평양성태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백전로장 태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전장에서 한생을 보냈고 이제는 말년이 가까와오는 로인을 그 위험한곳에 보내려 하다니… 아, 그럼 누구를 보내야 한단말인가?)

왕이 종시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태수가 찾아와 아뢰였다.

《소신이 이젠 늙어 퍽 굼뜨오나 대왕님을 태자시절부터 모셔오지 않았나이까. 바라옵건대 이번 뜻밖의 사태앞에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신은 아직 령은 받지 않았사오나 벌써 마음속으로는 어명을 받은것으로 여기고있소이다.》

왕은 넋잃은 사람처럼 바라볼뿐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군신간의 혈맥이 어쩌면 이다지도 한피줄마냥 통한단말인가!

이 로인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였지. 아— 우리 고구려에 이같은 장수가 많아 강국의 위용을 떨친게 아니였던가! 허지만 왕은 다른 장수를 내정하였다고 다르게 말했다. 태수는 신하란 임금을 충성과 효도로써 받드는게 아닌가고 하면서 수락해줄것을 간청하였다.

왕은 태수의 가식없는 충정앞에 끝내 지고말았다.

왕은 자기를 호위하는자들중에서 마음드는 사람을 골라 데리고 가라고 하였으나 태수는 자기 수하에서 련락을 감당하던 나어린 홍안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평양성태수는 5만명의 보병, 기병으로 편성된 고구려군사를 데리고 신라로 달렸다. 태수를 바래주며 왕은 마음속으로 바랐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주었으면…)

신라청병의 길에 나선 고구려군사는 남거성에 도사리고있던 왜적을 단숨에 무찌르고 그 달음으로 질풍처럼 내달려 신라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의 하나인 신라성을 포위하였다. 왜적은 이 성을 저들의 본영으로 삼고 신라전지역을 깔고앉을 작정으로 완강히 저항하였다. 성안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소나기 쏟아지듯 맹렬했다. 고구려군도 적지 않은 희생자를 내였다.

전장을 묵묵히 살펴보던 태수는 홍안을 찾아 수하군장들을 불렀다.

이윽고 세명의 군장들이 태수의 장막에 나타났다. 온종일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군장들은 그앞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

《더운물을 마시라구. 그럼 속이 좀 풀릴걸세.》

태수는 호된 추궁대신 사람좋게 웃었다. 그들도 태수앞에서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한다하는 고구려의 장수들이 그쯤한 싸움에서 어깨가 처지면 쓰겠소?》

군장들에게 더운물을 강제로 먹이다싶이한 그는 말했다.

《병법에서는 도망치는 적에게 살구멍만은 내주라고 했소. 궁한 승냥이는 길목을 지켰다가 잡는 법이요. 그러니 적이 빠져나가는 길목 여러곳에 복병을 미리 깔아두었다가 좌우앞뒤에서 불의에 들이치고는 길을 열어주군해야 하겠소.》

그 말을 들은 장수들은 조급한나머지 공격에만 집중한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다음날 새벽 고구려군은 또 드센 공격을 하였다. 적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한쪽 성문을 열고 빠져나와 무질서하게 도주하였다. 적들이 얼마간 패주했을 때 길목에 잠복해있던 고구려의 복병이 불시에 좌우에서 덮쳐들었다. 혼비백산한 놈들은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태수는 이것을 보고 젊음을 되찾은듯 싸움판에 뛰여들었다. 그의 장검이 허공에서 번쩍 빛날 때마다 맞다든 적의 머리가 떨어졌다. 허나 태수는 예전처럼 민첩하지 못했다.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진놈이 쏘는 화살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가슴에 화살이 박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신라성이 탈환되자 나물왕은 태수의 시체를 옥관속에 안치했다.

태수를 살려내지 못한 홍안은 무슨 면목으로 대왕님을 뵈옵겠는가고 하면서 말을 타고 적진에 뛰여들어 칼을 휘둘렀다. 수명의 적을 요정낸 그도 끝내 전사하고말았다.

그때 홍안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고구려군사들은 노한 사자처럼 적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마지막아성에서도 적을 쫓아내였다.

고구려군은 왜적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하였다.

신라왕정은 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나물왕은 나라의 금은보화를 죄다 가지고 왕자, 공주를 앞세우고 평양성에 있는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조공을 하러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때 이찬 무알이 계림국이 생긴이래 임금이 친히 고구려지경에까지 들어가서 조공을 바친적이 없다면서 까박하였다.

《덕은 덕으로 갚아야 한다. 왜적에게 투탁하자던 그대가 이제 무슨 낯으로 과인의 앞길을 막는고. 어서 물러가라. 여봐라, 이찬 무알을…》

나물왕의 버림을 받고 쫓겨난 무알은 곧 자결하고말았다.

과인과 뜻을 같이 안할 서불한들은 따라나서지 않아도 좋다고 하면서 궁녀들까지 거느린 왕은 진귀한 보물을 수백대의 달구지에 싣고 경주를 떠나 평양성으로 향하였다.

개선하는 고구려군사들이 전사한 태수와 홍안의 시체를 옹위하여 함께 떠났다.

푸근한 함박눈이 개선하는 고구려군사들의 앞길에 조용히 내리였다. 그럴 때 평양성에서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로 흥성거리고있었다.

광개토왕은 자기의 어린 태자(후날의 장수왕)를 성문밖에 내보내여 나물왕일행과 개선하는 고구려군사를 맞이하였다.

《신라왕인 이 노객 김나물은 대고구려 임금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신라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 만대를 두고도 잊을수 없사와 대돌아래 이마를 조아려 감사의 뜻 아뢰우려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왔나이다.》

광개토왕은 급히 달려가서 언제까지라도 엎디여있을것 같은 나물왕을 부축하여 대궐로 들어갔다. 그 뒤를 실성과 왕자, 공주, 재상들이 줄줄이 따라섰다. 대궐안팎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흥겨운 가무가 벌어졌다.

그럴 때 수레에 실은 평양성태수와 홍안의 시신이 당도하였다.

광개토왕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 수레를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았다. 신라가 엇서지 않고 오늘처럼 두 나라가 화목하였더라면 저런 가슴아픈 희생은 내지 않았을것이다. 그는 자기앞에 이른 두구의 시체앞에서 숙연히 고개를 숙이였다. 나물왕일행은 몸둘바를 몰라하며 숨을 죽였다.

《가슴아픈 희생은 있었으나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앉게 되였으니 다행한 일이 아니리까. 헌즉 한피줄을 타고난 겨레끼리 한지맥으로 잇닿은 이 강토에서 영원히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랄뿐이외다.》

광개토왕은 나물왕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빛났다.

광개토왕이 죽은후 비문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그의 은덕은 멀리 하늘에까지 미치였고 그의 무위는 널리 온 세상에 가득찼다. 대왕이 백성에게 해되는 모든것들을 제거하니 그들은 자기의 생업에 힘쓰게 되고 편안히 살게 되였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편안하였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오곡은 잘 익었다.》



본사기자

독자란

깊이있게 알게 되였습니다

저는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살래야 살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수 없는 망국의 설음을 안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광야를 헤매이던 조상의 후손입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국은 언제나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귀중한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의 심리를 헤아려 《금수강산》잡지까지 보내주니 그 사랑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잡지를 통하여 저는 날로 변모되여가는 고국의 새 모습을 보고있으며 고국의 혁명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더 폭넓고 깊이있게 알게 되였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원칙과 리념을 지키지 못하여 풍파와 시련을 겪고있지만 고국에서는 사회주의사상이 인민들의 마음속 깊은곳에 뿌리내리고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더욱더 확고해지고있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직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령도자를 모셨기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날을 앞당기는데 헌신분투할것을 굳게 결심하는 바입니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 유림진 영수촌
조선족소학교 최준산

좀더 알고싶은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수강산》잡지는 고국의 사회주의건설성과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를 리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저는 잡지에서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었을 때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민위천》의 위대한 사상을 지니시고 시련에 찬 험한 길을 헤쳐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그 나날들을 회고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저의 머리속에서 떠날줄 모릅니다.

저는 또한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의 수기를 읽었을 때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의 신념과 고결한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의지야말로 한 인간만이 아닌 바로 우리 겨레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혁명적인 경제전략을 높이 받들고 헌신하는 고국인민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바람이 휘몰아쳐도 변함없이 인민을 위한 정책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있는 고국의 현실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잡지를 통하여 우리들이 좀더 알고싶은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 대한것입니다. 물론 잡지로서 그것을 충분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국의 력사에 대한 리해는 애틋한 향수와 더불어 언제나 깊이 관심하게 되는 문제랍니다.

편집부에서 이 점을 많이 노력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치치할시 조선족
중학교 계 성 건

토막소식

새로 수집된 고려청자기

조선민속박물관에 새로 수집된 800년전의 유물인 고려시기의 청자기 여러점이 전시되여있다.



국화무늬박이잔과 잔대

그중에서 이목을 끄는것이 《국화무늬박이잔과 잔대》와 《거부기장식뚜껑향로》이다.

《국화무늬박이잔과 잔대》는 말그대로 국화무늬를 새겨넣은 술잔과 그것을 받치고있는 잔대로 이루어져있다. 술잔은 방금 피여나는듯한 8개의 꽃잎으로 된 련꽃을 형상하고있으며 잔대는 웃부분에 활짝 핀 국화무늬가 놓여진 5개의 발로 형상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 보게 되는 유물이다.

목을 쑥 빼들고 입을 벌리고있는 거부기, 몸체부분의 안그릇에 향나무를 넣고 불을 달면 피여나는 연기가 거부기의 입으로 나오게 만든 《거부기장식뚜껑향로》역시 처음으로 보게 되는 희귀한 유물이다.



거부기장식뚜껑향로

이 도자기들은 기발한 착상과 섬세술로 이름높은 고려시기 도자기술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밖에도 《풀잎그림무늬병》을 비롯한 여러점의 고려시기 청자기들이 수집전시되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다.

홍복사 7층탑

홍복사 7층탑은 평양시 홍복사터에 있었던 고려시기의 돌탑이다. 탑은 그후 대동문앞으로 옮겨지고 다시 모란봉의 을밀대가까이에 옮겨졌다가 현재 룡화사에 있다.

홍복사는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동의 평천나루터에서 북쪽으로 400메터정도 떨어진곳에 있던 절간으로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홍복사를 언제 세웠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 《고려사》에는 왕들이 1087년과 1116년에 홍복사에 들렸던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므로 11세기말에는 홍복사가 상당히 큰 절간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홍복사가 오랜 력사를 가진 이름난 절간이였으므로 거기에 세운 돌탑도 우수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만들었던것 같다.

탑은 화강암을 다듬어 6각으로 쌓았다. 탑의 높이는 5.35메터이며 우로 올라가면서 밑단과 탑몸의 너비와 높이를 차례로 줄여 균형을 잡으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게 하였다. 밑단 한변의 길이는 1.29메터이다.

탑의 밑단부분은 바닥돌우에 6각평면의 대돌을 3층으로 포개여놓고 그것으로 아래 밑단을 대신하게 하였다.

탑몸은 7층이며 층마다 몸돌의 매 면에 네모난 오모기를 파고 거기에 부처들을 돋우새겼다. 몸돌에는 따로 고임을 놓지 않았다.

지붕들은 두껍게 하면서도 처마의 웃선과 물매를 이룬 지붕면들에 완만한 휘임을 주어 경쾌해보이게 하였다.

탑머리는 보통 탑들과는 달리 간소한 로반과 활짝 핀 련꽃모양의 앙화우에 련꽃봉오리를 형상한 보주를 올려놓았다.

이 탑은 균형이 잡히고 조각이 섬세하며 시원한 느낌을 주는 조형예술품이다.

홍복사 7층탑은 비록 불교를 선전하고 인민들을 봉건적 및 종교적 예속에 얽어매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리용된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술, 조형예술적재능이 깃들어있는 문화유물이다.

본사기자



